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JUN 17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sp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일간) No. 539 1981년6월13일(토) Saturday, June 13, 1981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 : (416) 533-2361

맨주먹 留學生이 한달賣上만 20億원

회사설립 5년만에 大會社 사장된 在美同胞 황규빈씨

美國유학길에 오른지 17년. 접시닦이, 식당보이등 안해본일이 없다. 그러면서 大學과 大學院을 졸업했고 7년동안의 월급장이로 모은 돈이 9천달러가 됐다. 그 9천달러를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한지 불과 6년만에 한달 매상액이 3백만달러(21억원)가 넘는 大會社의 사장이 됐다. 내년엔 1억달러(7백억원), 그리고 5년뒤엔 5억달러(3천5백억원)의 年賣上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억척 在美교포의 놀라운 成功談. 有名經濟誌「포천」에 크게 소개되기도 한 그 주인공이 바로 황규빈씨다.

7년간 G·I社등서 근무…9천달러 모이자 회사세우고
실리콘·밸리서 CRT제조…百餘社 물리치고 頂上차지

◇전자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서 텔리비디오·시스팀회사를 차려 성공한 교포 황규빈씨. 현재 판매액은 월3백만달러, 올해 목표액은 연간 3천5백만달러이다. 텔리비디오는 앞으로 소형컴퓨터, 프린터등에도 관계할 계획이다.

□社員 2백명

샌프란시스코 바로밑 산타클라라카운티는 일명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전자산업의 메카로 널리 알려진 이 실리콘밸리는 1930년대만해도 과수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것이 1959년 이곳 페어차일드회사의 로버트·노이즈박사가 실리콘을 트랜지스터에 이용하는 소위 제미콘다터기술을 개발하면서 각종 전자산업체가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곳은 실리콘밸리로 불리게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리콘밸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전자산업계를 리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영국, 일본등의 자본투자도 급속도로 늘고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는 미국전자산업계의 70%가 몰려있으며, 회사수는 5천여개에 달한다.

이 실리콘밸리내에 한국인 기업주가 있다. 물론 자그마한 하청업체 기업주는 몇명 있지만 이 회사는 본격적인 전자회사인 CRT 제조회사이다.

CRT란 타이프라이터·키보드가 부착된 TV세트 모양의 비디오·터미널, 비행기·호텔등의 예약관계 자료를 넣었다가 빼고 타이프·편집의의 갖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뭏든 이 한국인 CRT

64년 한양大2년때 渡美유학
접시닦아 學費벌며 學業마쳐

회사는 79년초 CRT 시장에 뛰어든 이래, 약1년반만에 독립CRT 제조 회사중 판매 실적 수위를 달리기에 이르렀다. (독립회사란 컴퓨터와 CRT를 동시에 생산하는 IBM과 달리, RT만을 제조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자랑스런 한국인 회사는 텔리비디오·시스팀이며, 사장은 황규빈씨(40)·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필립 황으로 통한다.

현재 텔리비디오의 월 판매액은 3백만 달러이며 CRT판매량은 5천유니트.

그중 65%는 미국내에, 나머지 35%는 외국으로 수출된다. 사장실벽에 붙은 세계지도에는 40여개의 압핀이 곳곳에 박혀있다. 서독, 일본, 캐나다, 사우드아프리카등 안박힌곳이 없는 압핀들은, 바로 텔리비디오의 국제적인 세일즈망을 대변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약1백개에 달하는 CRT제조업체를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황사장의 설명이었다.

오늘날 스케어피트빌딩에서 약2백명 (그중 3분의 1이 한국인이며 20명이 엔지니어)을 거느리고 있는 황사장이지만, 그의 첫 미국생활은 너무나 가난한 유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었다.

한양공대 2학년을 중퇴하고 유타주립대학으로 전기공학 공부차 옮겨온것이 64년. 당시만해도 유학생에게 보내줄수 있는 송금한도액으로는 등록금밖에 낼 수 없어 여름방학만되면 일거리를 찾아 유흥지인 레이크 타호로 떠났었다고 한다.

『학기말시험 마지막 답안을 쓰자마자, 약 20명쯤되는 한국학생들이 모여 밤을 세워가며 레이크 타호로 갔었지요. 더시 워서로부터 버스보이, 나중에는 웨이터로까지 올라갔읍니다. 또 8시간만 일해서는 도저히 다음학기 생활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하루 16시간을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고나면 이번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서야 잠이 들곤했읍니다.』

황은 학교에서 만나 그곳에서 결혼한 부인(아파트비를 줄이기위한 것도 그 이유중 하나였다고 황사장은 웃으며 말했다)은 카지노에서 쓰인 동전을 말아 놓는일에 매달렸다.

□포드에 첫 취직

68년 유타대학을 졸업한 황사장은 동부로 옮겨 포드회사에 취직을 했다. 포드에서 약 반년간 일한후 뉴욕, NCR등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러는 사이에 밤에는 웨인주립대학에서 수강, 대학원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항상 캘리포니아쪽으로 오고싶었어요. 동부에서는 좋게건 나쁘게건, 동양인을 따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때 마침 눈에 띈 것이 제너럴·인스트루먼트라는 한 실리콘 밸리내 작은 회사의 사원모집 광고였다. 드디어 전자산업의 메카로 옮겨온 황사장은 GI에서 일하는동안 자기사업의 꿈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가 첫 사업에 손을 댄것이 75년. 황사장은 한국인 2명과 함께 전자게임에 필요한 비디오모니터를 자신의 집 차고안에서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천달러의 자금은 개발비로 다 나가버렸고, 자금이 떨어지자 6개월만에 두사람 다 그 일에서 떠나고 말았다.

이때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한국의 TV회사들. 그는 한국에 들어가 7개의 회사와 접촉해 보았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우선 그것이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주문량이 너무 적어 접촉을 시도한 7개회사중 6개사가 이를 거절했다.

다행히 대한전선에서만은 흥미를 보였으나 주문량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에 돌아온 황사장은 어발리아회사및 다른 전자게임제조회사에 샘플과 가격을 제시한 결과 생각보다 훨씬 많은 6천유니트의 주문량을 얻을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부딪친 문제는 돈이었다. 그 물건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 황사장은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한 애로중, 가장 어려웠던때가 그때였다』고 회상한다.

초창기엔 電子오락機器개발
경쟁사 생겨나 業種 바꿔

『만약 미국인이 그같은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자본가를 구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었고 또 흥미를 가졌다해도 우리집 차고 작업장을 보고는 모두 돌아섰어요.』

그는 필요한 2만5천달러중 1만2천달러는 이리저리 꾸었으니 나머지는 집은 물론 자동차와 책상등 집안의 모든 것을 저당잡히고 자신히 은행융자를 얻어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그가 채 비나 손댈때만 해도 모머물러 하나밖에 없던 모니터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모니터에서 CRT로 업종을 바꾸기로 작정했다.

CRT는 모니터보다 훨씬 복잡한것으로 지금까지 모니터를 만들던 대한전선에서는 CRT생산은 못하겠다고 말해왔다.

□部品은 韓國서

이제 CRT 제조 희망을 나타낸 회사가 동양정밀. 78년12월 첫샘플을 만들어 낸 후 79년초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그가 처음 생산을 시작했던때 CRT업계를 주름잡던 어플라이드·디지틀·데이터·시스템즈, 리어·시글러 회사등은 텔리비디오가 판매를 시작한지 1년반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텔리비디오가 삽시간에 CRT업계를 휘어잡은데에는 그만한 비결이 있었다. 가령 스마트·터미널의 성능을 타회사의 것보다 더욱 우수하게 만들면서 타회사 가격보다 20~30% 싸게 제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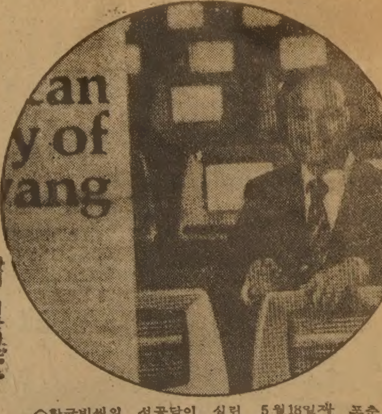
『당시 우리가 첫 물건을 내놓자 다른회사에서는 밑지면서 파는것이라고 했읍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실하게 이익을 보고 있었지요.』

황사장은 월판매액 3백만달러중 1백만달러가 세금을 내기전 순수 이익이라고 들려준다.

텔리비디오의 판매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성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79년의 CRT판매량은 5천90유니트(2백25만달러)·이것이 80년에는 2만4천5백유니트(1천2백66만달러)로 급성장했고 금년에는 4월말까지 이미 80년 한해동안과 똑 같은 실적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독립제조업체중 마켓점유율은 25%.

올해 10월까지의 판매 목표액은 3천5백만달러이다.



◇황규빈씨의 성공담이 실린 5월18일자 포춘지. 짧은 기일내에 CRT업계를 리드하게 된 코리언·이미그런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뉴스·안테나

國內

南部 旱害극복에 全力
山너머 물끌어 모내기도

모내기 철이면 연례행사처럼 가뭄과 싸워야하는 기상조건을 가진게 우리나라인것같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뭄은 남부지방 곡창지대를 또한번 곡항덕이고 있어 농민들은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 가뭄극복에 나서느라 하루해가 짧기만하다. 全南寶城郡미력면초당리 40여가구 농민들은 지난달30일부터 마을에서 5㎞나 떨어진 寶城

장거티·다단계의 양수작업은 全南寶城郡通顯面본천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마을 40가구 2백여농민들은 마을로부터 2㎞ 떨어진 숙원 거적골하천에서 4단계의 양수작업으로 해발 2백m의 산을 넘어 물을 끌어올리고있다. 마을 이장 孫昌洙씨에서 물을 퍼 올려 51정보의 논중 3일현재 20여정보에 모내기를 끝냈다. 2천여평의 논가운데 1천여평만 모내기를 끝냈다는 이 마을의 金文道씨(53)는 『양수기 1대에 물어가는 인건비와 유류대등 하루동안 비용만도 1만5천원에 이르러 걱정이 태산같았지만 정부에서 양수용 유류값을 지원해준다니 힘이 솟는다』며 의욕을 보였다.

永仙씨(36)는 『1모작 영농시한인 5일까지는 모내기작업을 1백% 완료할수있을것 같다』면서 『우리마을은 한해상습지여서 마을 공동으로 양수작업을 일찍 서두르게 됐다』고.

◇南部지방의 혹심한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아 세 아
건재약방
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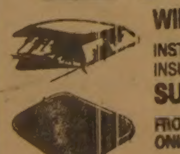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 3
조지섭·김영철

특별할인은
6월20일
까지입니다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 해 문
Finch & Keele

스타☆미용실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Hair Stylist—Keo Kim

파 이 오 니 어
PACKAGE
스페샬·세일 $499
레시버
테프·덱(샤프)
턴·테이블
스피커(둘) MDS $599
파이오니어 고급 카셑트의 각종류 전부구비했음.
$169~$549 있음.
4544 더프린 스트릿트(휜치×더프린)
☎ : 633-2332
하이·파이 HOUSE
김 왈 근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순결과 정조관념에대해 젊은 知性들은 男女對等한 차원높은 精神的 狀況을 강조하고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예부터 여성의 순결은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겨왔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간의 의식구조도 바뀌어 왔고 정조관념 또한 달라지고 있다. 과연 여성의 순결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것인가? 젊은 지성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德成女大신문 (5月25일字)에서 발췌>

젊은 知性들의 意見

客觀的으로 볼때「純潔」은 生命의 重要性에는 못미쳐
江을 하나 사이에두고 變하는 眞理는 眞理가 아니다

■이혜웅(外國語大經濟學科2년)

예부터 우리나라는 여성의 순결을 매우 중요시해 왔다.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일은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순결은 상당히 엄격한 규율로 존재해 왔다.

이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순결은 과연 어떤 뜻을 지니는 것일까?

국어사전을 보면 순결이란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뜻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일이며 따라서 순결은 객관적으로 볼때 생명의 중요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순결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왔다.

특히 이같은 전통은 체통과 가문의 명예를 중히 여기던 양반사회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한 실례를 들어본다.

丙子, 丁卯胡亂때 한반도를 유린한 胡兵들은 전리품으로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었다.

이같이 납치되었다가 되돌아온 부녀자들은 還鄕女 또는 還女라고 불렀다.

영영 생이별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나 아내가, 또는 딸들이 돌아왔을 때 그 再會의 기쁨은 얼마나 큰것일까.

하지만 우리의 모럴은 이 기쁨을 용납할수가 없었다.

가문을 더럽혔다 해서 일연을 끊거나 婢女로 下賤시키거나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여성의 순결문제는 가혹하리만큼 절대적인 규율로 존재해왔다.

절대적이고 불변의 진리와도 같이 지켜져왔던 순결문제는 해방과함께 프리섹스라는 새로운 서양바람이 밀려오면서 우리들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성의 순결문제는 반론의 여지가 많은듯하다.

우선 유독 여성의 순결만을 강요해온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男尊사상의 소산이다.

원래 도덕이란 강자에 의한 횡포이므로 남존사상에서 남녀평등의 사회로 발전한 현싯점에서 여성의 순결만을 강요한다는것은 일종의 난센스인 것이다.

또 육체적 순결만을 고집해온것은 남녀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던 구시대의 산물이며 정신적 순결의 차원과는 비교될수 없는것이다.

그 옛날 부모가 짝지어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순결을 무조건 바치는 그런 종류의 순결의식은 마땅히 바뀌어져야 옳다고 생각한다.

맹목적인 순결의 고수나 프리섹스의 양면을 모두 반대하고 육체적인것 보다는 정신적인것을 높이 사는것이 나의 소견이다.

파스칼의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변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점에서 다분히 시사적일 수 있다.

男女 對等한 입장에서 次元 높은 精神的 狀況을 강조
庭園의 꽃을 膳物하기전에 잎을 다듬고 곱게 포장해야

■이병숙(德成女大國文科3년)

미약한 인간이 자신의 분리감을 극복하기위해 사랑을 한다고 볼때 완전한 결합만이 진실한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태우고 자신의 모든것을 깨뜨릴수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완벽한 사랑을 할수있다고 본다.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이 진실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육체적인 면과 함께 정신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에 의하면 일방적인 순결을 요구한다. 그 사랑이 실패할 경우 어느편에게 타격과 손실이 가는가를 따지려 든다. 그때문에<상처를 받는다><순결을 바쳤다>는등의 피해자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이란 자로 재고 저울에 달아서 허용치나 허용량을 정할수 있는것이 절대 아니며 사랑 또한 바쳤느니 뺏겼느니하는 용어를 적용시킬 성질도 아니며 또 실패한다고 해서 한편에게만 결손이 가는것이 아니다.

우리 여성들은 흔히 남성에 대해 너그러워진다. 남성의 성욕을 배설욕에, 여성의 그것을 미각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은 동정을 지키는것이 어렵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정도의 생각까지 갖게되며 여성조차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것이 상대방 결점이나 상처등을 이해해 주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남성을 王的인 존재로, 여성 자신은 신하로서 이해하려 드는 것이다.

여성의 의식구조가 깨우쳐졌다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朝鮮의 여인네로 남아 있다.

무조건 남성을 이해하고 자신은 목숨처럼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우선 벗어나야 되겠다.

서로를 위해 순결한 몸과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이상 아름다운것이 또 있겠는가?

육체적인 순결을 강조해 왔던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순결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감정에 빠져 서로를 조각조각 상대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갈고 다듬는 노력을 해야한다. 마치 정원의 꽃을 선물하기전에 잎을 다듬고 곱게 포장하는것과 같이…』라는 어느 글귀가 떠오른다.

여성과 남성이 구별없이 서로를 위해 책임지고 항상 순결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상대에게 건강한 자신의 모든 귀한 것을 줄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세이다.

婚前 性關係는 贊·反論 있을수없고 단지 肯定·否定정도

■노은숙(德成女大國文科3년)

혼전 성관계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말하기 앞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당사자 남녀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전 성관계의 논란에는 순결·정조따위의 단어가 따라 나오게 된다. 이런 유의 단어들은 여성과 관련되어 연상되기 마련이고 또 흔히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순결문제에 대해 여성에게만 일임하고 남자와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식으로 사고하기 일쑤이다.

혼전이건 결혼이후건 성관계는 남녀쌍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혼전의 성관계를 가진 남녀를 놓고 볼때 거의 많은 사람이 여자의 점수를 깎는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 문제에조차도 남녀차별의 편견을 답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긍정, 부정문제는 반드시 남녀의 비중이 동등하다는것을 전제로 해야만 하겠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찬, 반론이 있을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정도일 것이다.

어떤 조건없이, 즉 상황에 관계없이 혼전 성관계를 쌍수로 환영한다는 것은 실제 사회속의 인간으로는 무리이겠고 진정한 사랑이란 전제조건이나 자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찬성하거나 긍정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무조건적인 혼전 성관계를 찬성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믿음이 확실한 남녀의 관계만을 긍정하는 것일게다.

나 개인의 주관적 의견으로는 혼전 성관계에 있어 남녀가 서로 일시적인 유희감정에 의해 관계를 갖는다면 또 그 사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 편견을 낳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것이다.

그러나 서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스스로가 떳떳할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말하고 싶은것은 결혼이전이라는 데에서 일반적 견해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러나 결혼만이 남녀의 만남이 아니고, 결혼만이 사랑이 아니듯 이 문제는 결혼이라는 기준에 얽매여 판단되어질 가치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혼전 성관계를 부정하는 의견에도 지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신성시한다든가 사회윤리적 측면을 고려한다는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결혼한 상대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순수하기를 바라는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문제는 막상 닥쳤을 때가 문제일것이다. 내남편, 내 아내의 혼전의 일에대해 용서가 아닌 이해가 가능할것인가이다. 진정 지금 상대의 인격을 신뢰하여 사랑하고 있다면 오히려 순수한 사랑을 가졌던 상대를 아름답게 보아야 할것이다.

현실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돌리지 말자. 부정하는 사람을 이기적, 보수적이라 단정하지 않았듯이 긍정하는 측도 욕구적이라거나 찰나주의적이라고 할수없는 것이다.

확고한 자기믿음을 전제로 하는 혼전 성관계에 긍정하는 사람으로서 바랄것이 있다면 이왕 혼전 성경험을 가진 남녀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혼전 성관계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도록 해주길 바랄뿐이다.

◇현대 여성들도 정신적 육체적 순결에 매우 긍정적이다.

「純潔」이란「사랑」과 맞바꿔지는「結婚禮物」이 아니다

■천제국(서울大貿易學科3년)

우리 사회에서 흔히 『순결을 바쳤다』느니 『순결을 잃었다』라는 말들을 들을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생각해보면 순결이란<가지고 있는>어떤것이어서 바치거나 잃어버릴수 있는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순결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순결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사랑을 달라』 또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순결을 주어야한다』고 말할수가 있겠다.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

순결을<가지고있는>어떤것이라고 생각한데서 비롯된것이 아닐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결에는 형이상학적인 뜻과 형이하학적인 뜻이 있다고 말해진다. 그렇다고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지적할수도 없다.

실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은 사랑이란것을<가질수 있는>어떤것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주고 무엇과 바꿀수있다는 생각인것이다.

사랑이란 너와 내가 交感하는 관계이며 결코<가지고 있는어떤것>이 아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는것이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사랑과 맞바꿔지는 예물이라는 생각은 잘못된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때, 그리고 사랑이라는것이 그사람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어떤것을 사랑하는것이 아닌것이다.

때문에 순결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랑할수가 없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수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볼것인가?

여기서 우리는<순결을 가지고 있지않다>는것과<순결하지 않다>는것을 구분해야 된다.

<순결하지 않다>는 말의 순결은<가지고있는어떤것>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순결을 진실한 사랑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때 순결하다는것은 이처럼 이해해야 될것이다.

두 남녀의 진실한 사랑은 마음속의 솔직한 감정을 서로 주고 받는데 있다.

사랑은 감정에 의해 싹트지만 그 사랑은 감정을 지배할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형이상학적 순결과 사랑은 각자의 순결한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은 너와 나의 交感關係
肉體와 精神은 동등 關係

■송현주(德成女大經營學科2년)

요즈음 우리 주위에선 『육체적 순결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것보다 정신적 순결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정신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것같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시대의 흐름이며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그릇된 생각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생각은 왜곡된 생각이며 현대인의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의 규범속에서 교육되어 왔고 사회화되어 온 우리와 그 가운데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은 옷이나 머리모양의 유행처럼 순간성을 보일수 없으며 혹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방적인 존재에 불과한것이다.

육체와 정신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것이지 어느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하는 평가는 있을수 없다.

그 둘중 어느 하나가 온전치 못하다면 완전하고 행복한 생활은 영위될 수가 없다.

육체적 순결은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지나치게 부담감을 가져서는 안되며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옛 선인들이 뜻하는 순결의 의미를 그대로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들의 조화를 꾀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는 육체적으로도 한몸이 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혼이란 오늘날의 사회적 도덕적 법률적인 조건 밑에서 이 욕망을 이루려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性的으로 맺어진다는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말하듯이 『육체를 허락하지 않는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남자들은 곧잘 말한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육체적 욕망은 창녀에게 해결하는 남성도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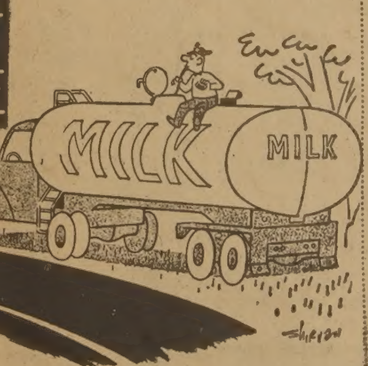
이와같이 남자라면 자가가 소중히 여기는 여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시적인 충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론상으로 결혼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기 보다 결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순결을 지켜야 좋을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순결한 사이를 유지해야 하며 또 유지할수 있는것임을 확신해야겠다.

결혼까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사랑을 주는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걸작 만화



나부터 우선 한잔……

그이의 電話는 화장후에야……

張吉山 (1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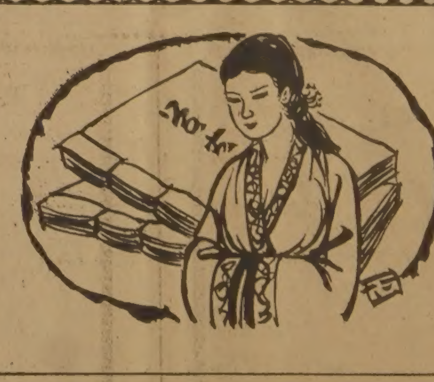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52)

장안부마도위(長安駙馬都尉) 무유(武攸)가 벼슬을 잃었을 때, 조판(趙璠)에 몸을 붙여 다시 나왔다하고, 그후에도 벼른 사람이 있으면 버릇가지로 벗어 주며, 동사자를 벗어 덮어주며, 흘빈을 먼저 주며 모두 벌을 낮게 하였다 한다. 한편 비를 내려 가뭄을 구하고 사를 내려 죄수를 위로하였고 나한의 우물도 찾고 물에 빠진 배(裵氏)도 구했다고 한다. 표익(表翼)을 탄았다는 것은 아마 배씨의 사실인듯싶다. 화제(和帝)가 만회대사에게 묻기를, 승가대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는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나라가 융성하던 때에 불도가 천하에 성행하였으나 다만 섬부(陝府)의 사람들은 활 쏘기 말 타기나 좋아하고 격투나 일삼으며 삼보(三寶)를 믿지않았다. 그때 한 여자가 그곳에 나타났다. 풍모가 초연하고 자태가 아름다운데 아무 권속도 시종도 없이 오직 단신이었다. 그 여자는 말하였다. 부모도 형제도 없읍니다. 시집을 가야겠으나 저는 재물도 필요없고 오직 총명하고 현철하며 능히 내가 가지고있는 경서를 외는 사람이면 그를 섬기겠읍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 들었다. 여자는 보문품(普門品)을 내주었다. 이것을 하루저녁에 외는 사람이면 내가 따라가겠읍니다. 이튿날 아침 그 보문품을 외는 자가 스무 명이나 되었다. 그 여자는 다시말하였다. 나는 한 몸이오 우리 집안도 대대로 정결한 집이니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남자를 섬길수 있겠읍니까. 다른 것을 한번 더 외야 하겠읍니다 하고 나서 여자는 금강경을 내주었다. 이튿날 역시 십여명이나 외는 자들이 있었다. 여자는 다시 약속하고 법화경 일곱 권을 내주며 사흘 안에 외라 하니 다만 마씨의 아들 한 사람이 통달하였다. 그 여자는 일렀다. 그대 여러사람보다도 총명하시니 제가 따라가겠읍니다. 그대의 부모님께 고하여 예를 갖추게 하소서. 혼인은 인생의 큰 예절이니 어찌 함부로 따를 수 있겠나요? 이리하여 마랑(馬郞)이 예를 갖추어 그 여자를 맞아 잤다. 잠시후 여자는 몸이 괴롭다며 고요한 방에서 몇 시각 쉬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하객들이 채 흩어지기도 전에 여자는 죽어서 벌써 썩기 시작한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마랑은 여자를 장사 지냈다. 며칠 뒤에 한 노승이 지팡이에 장삼 입고 찾아와 여자의 친척이라 하였다. 마랑은 노승을 여자의 묘지로 안내하였다. 노승은 지팡이로 무덤을 마구 파헤쳤는데, 그 며칠 사이에 여자의 시체는 어느새 사그라져 노란 뼈 몇 점이 되어 있었다. 노승은 그 뼈를 장대에 꿰어서 지팡이 끝에 걸어메고 구경온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이 여인은 바로 성자이니라. 너희들의 업이 무거움을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부려 너희를 교화한 것이니라. 너희는 이 좋은 인연을 생각하여 고해를 면하라.

또한 연주(延州)땅에서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 어느날 살결이 무척이나 희고 얼굴이 아리따운 한부인이 홀로 시장을 떠돌아 다니니 젊은이들이 따라다니며 친하게 놀기도 하고, 같이자자고 유혹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그부인은 조금도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수년만에 홀연히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떠도는 인척없는 여인의 시체는 길가에 묻혔다. 그후 당나라 대력연간에 홀연 어떤 노승이 그묘앞에 좌구를 펴고 앉아서 분향하며 여러날동안 독경하였다.



流星의 賦 <1?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紀昌의 길 ⑫

제천(堤川)에서 왔다고 했다.

처녀의 이름은 순네. 총각의 이름은 용세. 용세와 순네는 제천 배좌수(裵座首) 집의 종이었다.

둘이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 동기간(同氣間)과 다름없는 정에 남녀간의 정이 섞였다. 둘이는 장차 부부가 될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늙은 배좌수가 순네의 머리를 얹히려고 했다. 머리를 얹힌다는 것은 첩(妾)으로 데리고 살겠다는 것을 뜻한다. 머리를 얹히는 날이 내일로 박두했다.

용세와 순네는 도망을 치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초저녁에 제천을 떠나 영월까지 온 것인데 순네의 걸음으로선 추적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런데다 들길에 나서 날이 밝았으므로 어디 숨을 곳이 없었다.

용세는 자기는 붙들릴망정 순네를 붙들리게 하진 않겠다. 그러던 차 공교롭게 재남을 만나 순네를 부탁해 놓고 자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 추적자들을 그쪽으로 끌고 갈 것이었을 것이다.

순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판단한 김달순은 순네를 주막집 다락방에 숨겨두고 하루쯤 거기 머물면서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 어떻게 하건 그 젊은 남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달순이 늦은 아침밥상 앞에 앉으며 주막주인에게 물었다.

『제천의 배좌수란 사람 어떤 사람이오』

사람이 무던하다고 들으면 제천까지 가서 배좌수를 만나 보겠다는 속셈으로 김달순이 물은 것이다.

주인의 대답은—.

『양반 욕 하다간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소만…배좌수란 영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란 소문이 자자하고 있읍죠』

그렇다면 다시 깨어 좋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도망길을 도와줄 수 밖에. 이렇게 생각한 김달순은

『오늘 길을 떠나지 못했다. 넌 바깥에 나가 놀면서 수상한 사람들이 오는지 눈여겨 보고 있거라』

하고 재남에게 일렀다.

그러고도 반나절을 지났을까, 저편 산모퉁이에 한 떼거리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들 [illegible]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제남이 얼른 그 사연을 달순에게 알렸다. 달순이 나와 주막집 앞에 섰다. 어느새 그들은 주막에 도착하여 거지에 [illegible] 사람은 [illegible] 쪽으로 모여 술을 청했다.

『무슨 일이 있었수』

하고 달순이 물었다.

『말 마슈』

하곤 상좀 되어보이는 사나이가 투덜댔다.

『도망친 종놈을 잡아잔는데 그놈이 저편 [illegible] 지에 미끄러져 죽지 않았겠소. 종년만 잡아주면 좋아할 것인데…』

『그때 그 순네는 어떻게 되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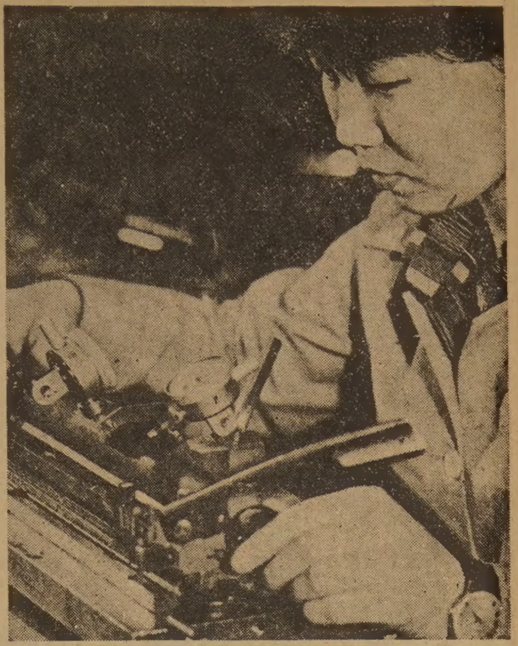
달순이 물었다.

『그게 이상하단 말요. 두 년 놈이 같이 도망친 줄 알고 따라 잡더니만 년은 온데간데가 없어. 아마 순네도 제천근처의 어느 산골에 숨겨두고 제놈만 평소 나를 치곤 뛰어 [illegible] 자 붙잡아 매려고 갈 궁리를 했나 본데…』

打字機만들면 战艦·航空機 만들수 있어

컴퓨터 産業의 前哨단계 그 技術과 現況을 알아본다

「정밀기계産業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타이프라이터産業붐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일고있다. 타이프라이터産業은 1천여개의 초정밀部品이 요구될 뿐아니라 컴퓨터産業의 前哨的인 분야. 그 나라의 종합적인 産業發達의 척도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타이프라이터産業의 現況을 알아본다.



◇타자기産業은 컴퓨터産業, 運輸産業등 현대産業의 기초단계가 되고 있다.

64년公炳禹씨가 첫國産개발
한땐 7~8社난립 競合벌여

□재벌그룹들 關心

우리나라는 세계 타자기 생산국 가운데 14번째의 생산국이며 東洋에서는 日本 다음의 생산국이다.

한글판타자기가 처음 등장한것은 6·25動亂직후 부터인걸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공병우박사가 美軍을 통해 들여온 美製타자기의 字版을 한글로 바꾼것이었다.

그리고 64년 그는 外國産을 그대로본딴 國産타자기를 처음 생산해냈고 이공박사의 國産개발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國産을 만들기 시작, 한때 7~8개업체나 되었으나 企業의 영세성때문에 거의 모두 도산, 현재기업다운 체제를 갖춘곳은 京紡그룹계열의 京紡기계와 東亞그룹의 東亞精工이 남아있을뿐이다. 東亞하나 최근들어 컴퓨터産業등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자연히 이런특수産業의 기초적인 産業으로서의 타자기産業에 재벌그룹회사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産業이나 軍需産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단계적인 産業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예만봐도 분명한 일이다. 美國의 유명한 IBM社도 원래 타자기생산회사로 출발해 세계굴지의 컴퓨터메이커로 발전되었으며 총기전문메이커 레밍턴社도 타자기메이커로 출발했고 이탈리아의 오리비티社의 경우도 당초 타자기메이커로 출발, 세계적인 유명車種인 피아트메이커가 되고 나아가서 장갑차를 생산해내는 軍需産業體로 비약하는등 그 실예는 너무나 많다.

이래서 우리나라서도 뒤늦게나마 지난75년 京紡그룹이 이업계에 참여, 소형타자기를 생산해내고 있고 뒤이어 東亞그룹이 참여, 3년전부터 소형과 중형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럭키그룹계열회사에서도 참여, 電子식타자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 이밖에도 大宇, KAL, 코오롱, 錦湖그룹과 사무기기메이커 신도리코등이 일찌기 이분야의 참여를 시도하거나 현재 구상중이라는것이다.

□기술폐쇄산업

타자기는 초정밀産業분야인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숱한 기술적인 난관을 안고있다.

외국의 타자기메이커들은 거의 모두가 노하우—즉 기술제공이나 제휴에 인색하고 또 타자기기술에 대한 문헌이 전혀 없다시피해 개발이 여간 어렵지 않은 극도의 기술폐쇄産業이라는게 東亞精工의 崔峻東기술담당이사 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창기 外國産을 그대로 흉내내 만들수밖에 없었고 고작해야 京紡이 최근 서독의 트라이움프社와의 기술제휴아닌 지도를 받고 있고 東亞의 경우도 서독의 타자기메이커 멧사(MESSA)로부터 직접 기술도입을 못해 멧사와 기술제휴한 포르투갈의 한 메이커로부터 겨우 기술도입을 해오다는것.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천여개의 部品을 초정밀하게 가공하고 또 조립하는 작업—즉 고도적인 기술집약성이 요구되는 이産業이 쉬울리가 없다. 1천분의 몇mm의 정밀성을 기해야하고 최고의 허용치도 불과 1백분의2mm밖에 안되는 까다로운 産業이기 때문이다.

타이피스트가 치는 한 타(打)에 최소 1백20개이상의 部品이 순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것이고 보면 얼마만큼의 정밀성이 요구되는가를 겨우 좀 짐작하게된다.

따라서 타자기공장을 세우려면 상상외의 거액투자가 소요된다.

값비싼 계측기가 수없이 필요하고 최소 몇천만원대의 정밀검사기들이 필요하며 1백種에 가까운 공작기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선반의 경우도 반드시 1천분의 몇이상의 초정밀 電子계측기가 붙어있는 특수선반이어야 한다.

국민학교생 책가방보다 작은 타자기에 電子장치 아닌, 순기계식을 위한 部品이 1천개이상이나 들어가고 또 이중의 한개 한개가 완벽한 제기능을 해야하는 극히 까다로운 조전때문이다.

□原資材의 난점도

이래서 항공기는 4次元의 기술이 필요하고 타자기는 3次元의 기술이 필요한 産業이라는 말까지 있다.

여기에 이 타자기 産業의 어려움은 관계部品 모두가 다른곳에도 사용될수 있는 汎用性이 전혀 없는데다 또 희소가치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또 타자기의 원자재는 모두 초정밀성이 요구돼 원자재에서도 수많은 난점을 겪고 있다.

타자기에 소요되는 특수강판에 있어서도 KS규격에 맞는것이기는해도 두께, 성분, 강도면에서의 초정밀성은 극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어서 섬능이 일정치 않고, 철사나 스프링도 만련이 불규칙적이어서 그 성능면에서 문젯점으로 남아있다.

타자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종류를 봐도 철, 고무, 플래스틱류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종류가 들어가며 특히 활자版과 그 받침대 그리고 그 연결중심부위등의 까다로운 조건의 제질은 표현조차 어렵다.

예를들어 활자版과 그 받침대는 너무 강해도 안되며 그렇다고 너무 약해도 안되는 일정한 저정강도를 가진 제질이어야 하며 특히 활자版의 받침대는 고무롤러와의 충돌에 의한 충격을 탄력으로 견디수 있으면서도 결코 휘지는 않아야 한다는 조전에도 맞아야해 우리 타자기 산업공장에서는 스웨덴製의 특수합금으로 만든걸 수입해와 사용하고 있는것.

그러기에 韓國에서도 연구와 개발을 거듭해 京紡의 경우 80%의 國産化에 이르고 있고 東亞도 90여%의 國産化에 거우 이르고 있다고.

□노동집약적 형태

타자기 産業이 이처럼 어려운만큼 이분야의 발전은 자연히 고도적인 産業의 발전을 기약하게 마련이다. 이는 타자기産業을 순수 우리기술로써 100% 완전소화할수있는 능력을 갖는 다는것은 그만큼 고도의 초정밀기계를 다 생산해낼수있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

최고의 精密性요구…原資材의 어려움겪고
현재는 90%國産化성공…中型品도 곧市販

이런발전이 관련産業界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도 어려울것이라는것이다. 또 이産業의 경우 部品은 오토메이션化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해도 조립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만 할수있는만큼 노동집약성이 우리나라로서는 안성마춤격인 産業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형사무용들은 많이 수입했지만 소형포터블의 경우 재작년까지 英文字版 타자기를 만들어 수출하다가 최근엔 國內수요가 늘어나 수출을 중단하고있다는것이다.

일찌기 총무처에서 한글字版통일작업을 마무리했다는 東亞精工의 李範恒부사장은 『우리나라에서의 타자기생산기술이 이나마 현재의 수준에 이른것은 世宗大王이 훌륭한 한글을 창조해냈기때문』이라는 世宗大王찬양론을 펴기도했다.

중국의 모택동도 죽기전에 『우리도 과학문명을 위해 한문자를 로마字식으로 단순화시켜야 겠다』고 했다고—.

『◇초정밀電子계측기가 달린 고성능선반으로 타자기의 部品을 깎고있다.

日本의 경우만해도 日本語版타자기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보기가 완전치 못해 보급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無電에 있어서도 英語와 한글은 5가지부호면 다 통할수있지만 漢文을 반드시 혼용해야하는 日本의 경우에는 최소 7가지로 만들어도 불편할 정도여서 日本글의 미흡함을 그들은 통감하고 있다는것.

□수출役軍으로 한몫

국내시장에는 현재 外國産타자기와 東亞精工의 마라톤타자기 그리고 京紡기계의 크로바타자기가 나와있다. 京紡은 外國産의 경우 14인치까지는 수입금지 되어있어 대부분이 대형.

東亞精工은 10인치와 13인치 두종류의 포터블형을 시판하고 있어 京紡기계는 9·5인치 소형타자기 6가지형을 시판하고 있다.

또 東亞精工의 경우 중형인 16인치 사무용과 완전사무용등 두가지 신제품의 개발을 끝내고 곧 시판할 계획이며 그리고 차트와 시칭수 있는 활자판의 특수타자기등의 개발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물량면에서도 京紡 기계는 현재의 연간 생산능력 3만여대를 내년까지 5만여대로 늘릴 계획이며 東亞精工은 1만여대에서 3만대로 늘리기위해 半月공업단지에 5천3백여평 규모의 새공장 건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나 이회사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겨우 赤字를 면하고 있는 상황.

東亞精工의 영업과장 조二天씨(39)는 『막대한 시설투자, 기술집약성때문에 수지는 좋지않지만 미래를 향한 비전에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셈이다』고 했다.

우선 곧 개발이 끝난 16인치가 시판되면 중형타자기수입도 금지되어 수입대체품목으로서 막대한 외화를 절약할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대목이면 회사수지도 크게 개선될것이라고 했다.

國産타자기의 작업능력도 美製 SCM경우와 1분간에 4백80타(打)에 비해 약간 뒤지는 4백50~4백60타라는 비교적 좋은 기록이 나와 있고 수출시장에서도 좋은값을 받았다고 했다.

타자기産業은 학생들과 사회인들에게 英語實力향상, 타자기술보유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기술축적産業인만큼 바로 國力의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점. 그리고 세계의 1백50개국 가운데서 10여개국에 이르는 타자기생산국에 우리나라도 들어있다는 점등에서인지 이 업계의 종사원들은 모두가 자부심이 대단했다. 【元】

韓國의 恋人들

홀어머니와 조리장수

춥다는 어머니 위해 조리장수를 들여 보내고
아버지의 回春돕고자 젊은 여종 시켜 侍寢케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효(孝)는 한국인을 속속들이 휘감은 생활윤리다. 비판받을 점이 없진 않으나 기리고 자랑할만한 특성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살을 기꺼이 베었으며, 3년간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초식만 먹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부모가 버리라 하면 버리고 미운 아내일지라도 부모가 원하면 함께 살았다. 뿐만아니라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는 똥맛이고, 병중이 아니라도 벼슬을 버리라 하면 버리고 학업을 중단하라 하면 중단했다. 장남은 조선봉사(祖先奉祀)위주였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 예가 많다.

효자·효녀는 부모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다. 원하면 따르거나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버린다.

이런 전제하에서 불려지던 다음 민요의 주인공은 효자·효부임에 틀림없다.

강원도 금강산 조리장사
조리 팔로 들어왔네
조리 사소 조리 사소
해가 저물어 갈수없어
잘데없어 해질래니
어떤 청년이 돌아와서
우리 어무니 자는 방에
하룻밤을 지내주고 가소
날로 날로 봉을 여니 천날만날 춥다 하더니
그날 밤을 자고 나니
어무니요 오늘밤은 따잖서요
에야야 오늘 밤은 모시게 잤다
그란후에 조리장사 떠난후에
천날만날 명을 자며
강원도 금강산 조리장사
그뭄 초승에 올라드니
이 왜 안오노 왜 안오노
주야장창 심려를 하니
아들이 듣고나서 미안하여
어머님요 어머님요 연전에 소문을 듣고 나니
조리장사 죽었다네
아이구야야 그게그게 그름 초승 온다드니
그래노니 아니온다
메늘아야 메늘아야 저 상자를 내라여라
명자치를 끊어내여 속주우적삼을 말라가주
메늘아야 빨리빨리 꾸메여서
삼작천에서 살아주면
강원도 금강산 조리장사
속주우적삼 남본듯이 가주가소
아들도 효자고 며늘도 효부라
이만하면 끝이써더

금강산 조리장수가 자고간 뒤에 과부 어머니가 조리장수를 그리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아름답게 그리면서 과부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률을 거부한다. 매일 봄을 대지 않는 일 춥다는 어머니를 위하여 아들이 조리장수를 불러다가 동침시킨 것이다. 무명을 자으면서 경북의 여인네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朴趾源」의 속의 어느 과부 자식들은 불효자라야겠다. 그 과부는 울퉁이 닳아 없어진 동전을 내보이고 울면서 서서 타령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네 어미가 죽음을 참은 부적이다. 내 이걸 십년간 손으로 만져 닳았구나. 사람의 혈기는 음양(陰陽)에, 정욕(情慾)은 혈기에서 비롯되며 생은 고독에서 나고 슬픔은 사상에서 비롯되지 않느냐. 과부란 고독과 사는데 슬픔이란 말할수없다.

그리고 혈기는 때를 따라 왕성한데 어찌 과부라해서 정욕이 없겠느냐. 가물가물한 등불이 외로운 그림자를 위로하는듯 고독한 밤은 새지도 않더구나. 처마끝에 빗방울소리가 처량할 때, 창에 달빛이 비칠때, 오동잎이 뜰에 나부끼거나 외기러기 울때 울음도 없는 긴긴 밤에 누구에게 나의 고충을 말하겠니. 그럴 때면 이 돈을 굴리기 시작하였다. 하룻밤에 대여섯번 굴리고 나면 먼동이 트더구나. 그리하여 십년 사이에 해마다 횟수가 줄었고, 십년 이후엔 닷새 걸러 한번씩 굴리다가 혈기가 쇠잔해진 뒤엔 그만두었다. 스무살은 해 동안 이 동전에 의지하고, 가끔 이것으로 깨우쳐 견뎌왔다.』

이야기를 마치자 모자가 서로 껴안고 울었다.

더우기 조선 선조때 전주의 하세헌(河世憲)이란 사람은 과부인 어머니가 종과 간음하여 가문을 더럽혔다는 구실로 어머니를 죽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사회에서는 엽전을 굴린 과부의 아들이나 하세헌을 불효자로 여기지 않았다. 아무리 효가 중시되고 우선된 사회였다 할지라도 여자의 정절 다음이었다. 효보다 정절이 중시되었다는 의미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절을 지켜야만 했다. 한남성에게만 소유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과부 어머니에게 강원도 금강산의 청년 조리장수를 들여보내고, 그런 노래를 여인네들이 공개적으로 즐겨 불렀다는 사실은 전통윤리에 과감하게 도전한 「서민의 인간선언」으로 보여진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인간의 정욕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는 식인 자연의 섭리로 해석했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더우기 정욕을 슬기롭게 해소시키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믿어 성의학(性醫學)까지 발전시킨 터다. 그래서 홀아비가 아니더라도 효자·효부는 연로한 아버지가 젊은 여종과 동침하도록 주선했다. 소녀동침은 회춘하는 비방이라 하여 부지런히 어린 종년을 웃방에 들여보내야 효자·효부로 쳤다. 그러니 바깥 어른이 첩이나 기생, 여종과 즐기는것은 당연하고 탓할 일이 아니며 홀아비라면 단 며칠이라도 모실 아내를 주선해 주는게 상례였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달랐다. 어머니의 음행은 물론 정당한 개가(改嫁)일지라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자손의 벼슬길을 봉쇄시키는 악행(惡行)·악덕(惡德)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 어머니 방에 조리장수를 모신, 효자 아닌 효자를 효자로 칭송하는 경북민요에서 한국 여성의 염원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다음 시조에 담긴 여인의 염원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진다.

얽고 검고 키크고 구레나룻 제것조차 길고 넓죽 점지아니한 늘이 밤마다 품에 드러 좀고 적은 궁게 큰 연장 너허두고 훌근할근 홀나 드릴 적에 애정은커니와 태산으로 덮누르는듯 진방 조차 날래 째먹던 심이 다 물거고나 아무나 이임다려다가 백년을 동주(同住)하고 영영 아니온들 어느 피딸년이 시앗새울 하리오.

◇레이건과 케네디의 多情한 포즈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이 5일 故로버트·케네디 前상원의원의 13주기를 맞아 미망인 에델여사에게 기념메달을 수여한뒤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과 포즈를 취하고있다. 【워싱턴5일UPI=聯合】

광고 접수
(416) 533-2361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북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미세스·리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입)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거구장
—특별메뉴—
족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피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각종 가죽옷 도산매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㉗

金洪信 作
崔然石 畵

지난줄거리

의리의 사내이고 싶어하는 송찬이는 원장선생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가를 알고 그의 가면을 벗기기로 결심한다. 늑대의 가면을 쓴 원장은 마취주사로 간호원과 어린소녀를 폭행했고 아내가 그의 나쁜 손버릇 때문에 자살한 것까지도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송찬이는 그 원장을 찾아가 꿇어 앉히고 그의 죄상을 낱낱이 캐기 시작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사내와 마담이 갈갈한지 꿈틀거렸다. 나는 발길로 툭 건드렸다. 마담은 몸을 잔뜩 사리고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 여잔 어떻게 알게 되셨소?』

사내는 눈을 깜박거리고 나를 응시했다. 귀밑의 금소를 손가락으로 쪽 찔러 버렸다. 사내는 이불 위로 벌렁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대접 해주니까 못봐주게 굴고 있어. 너만 수술 잘하고 뱃속 잘 긁어내는줄 알아. 내가 손가락 가지고 너 좀 수술해 주랴?』

거칠게 나가는게 상수라고 생각했다. 이런 치들은 아예 마구잡이로 다루는게 속도 편한 일이었다.

『왜 이러십니까. 뭘 원하시는지 말씀이나 해 주세요. 네, 제발。』

『그래, 말하마. 내 나이 스물두살이다. 넌 마흔 몇살인가 처먹었지。 난 반말지거리를 하고 넌 공손하게 굴고 있어. 째지기 싫어서 그러는거지. 난 수틀리면 네 뼈다귀를 려 분해한 만큼, 네 육체를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어. 널 죽이진 않아. 너같은 놈은 죽이기도 아까우니까. 묻는 말에 한마디라도 허튼 대답을 했다간 다시는 사내구실 못하게 해 버릴테니까 알아서 겨라. 알았지?』

사내는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 여잔 누구야?』

『네, 우리 간호원였었읍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치웠어. 솔직이 말해. 두번씩 경고하진 않겠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병신되는 것보다는 나을텐데。』

사내의 고개가 더 수그러들었다.

『마취제로…。』

『저 여자가 몇살 때였지?』

『딱 자격증 따 가지고 왔을 때니까…스무살쯤…。』

『널 대학졸업시켜준게 누구였어? 등록금 대주고 의사 되게 만들어준게 누구였어?』

『죽은 와이프였읍니다。』

『이게 영어 못해서 죽은 씨알받인가。』

『죽은 마누라 말입니다。』

사내는 재빨리 정정해서 말했다. 제 마누라를 굳이 와이프라고 할바에야 코 큰 여자를 얻을 일이지. 왜

『그런 마누라보고 이혼하자고 했어. 네 은인이잖아。』

『성격이 안맞아서 그랬읍니다。』

『그랬겠지. 바람 피우는 거 막는 마누라와 성격 맞을 놈 하나도 없을테니까. 최근엔 누구누구 건드렸어。』

사내는 작은 소리로 뭐라고 지껄였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너 가끔 귀도 먹고 벙어리도 되는 병 가졌구나. 그건 또 내가 전문의지. 무료로 고쳐 주지。』

발길로 두번 걷어찼다. 사내는 엉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엉거주춤 늘이뛰기를 했다.

『이제 좀 나아올것이다. 아직 그놈의 병이 남았으면 본격적으로 치료해 주께。』

사내가 무릎을 꿇어 앉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원하시는대로 하겠읍니다。』

『약속할수 있읍니까?』

『맹세하겠읍니다. 정말입니다。』

『묻는대로 대답하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대충 눈치챈것 같았다.

『내가 저승에서 왔다지 않았어. 대답해. 마누라가 왜 자살했는지。』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마누라는 피해자 때문에 못 견뎠읍니다. 수사관들이 발표한 대로 피해자 가족이 못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모양인 데…제가 견딜 수 없어서 이런데 와서 잡니다만…다 해결된건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아마 약한 여자 마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서에 그렇게 써 있던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내는 내 얘기에 숨통이 트이는 눈치를 보였다.

『유서가 몇장였어?』

『한 장입니다。』

『한 장이라. 겨우 한장 써 놓고 죽는다 이거야! 이게 누굴 바지저고리로 보고 있어。』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조사가 끝났잖습니까。』

『너 그럼 유서 외울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첫장부터 끝장까지 죄 읊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른대로 말을 하든지 둘중에 하날 선택해。』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낼 수도 없잖습니까。』

뻔대 볼 심산인 것 같았다. 뻔할수밖에 없을 일일 것이다. 그것만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테니까.

『너, 나한테 맹세했지? 헛맹세할때 어떻게 고치는지 내가 우연히 배운 적이 있어。』

퍽퍽 퍽퍽.

그는 내 울분과 약오름의 스파링 파트너였다. 또 그는 내 정의감과 주먹솜씨의 샌드 백이기도 했다.

『네 마누라가 염라대왕한테 부탁을 했어. 잃어버린 유서를 찾아달라고. 난 염라대왕한테 청부를 받았지. 그냥 돌아갔다간 염라대왕이 내 목을 쑥 빼다가 야구연습할 지 몰라. 난 목이 하나 뿐야. 너야 목이 몇개 되니까 내가 두어개쯤 뽑아가도 괜찮지만。』

사내는 내 계속적인 주먹질에 견디다 못해 벽을 붙잡고 부지직거렸다.

이런, 치들은 아예 거칠게 다루는게 상수였다

"저여잔 처음에 어떻게 괴롭혔어? 몇살때?" "스무살…마취제로…"

『너한테 당한 여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좀 알것같지。』

『죽을 짓을 했읍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맹세합니다。』

『넌 맹세에 걸신들려 죽은 조상이 있냐?』

『그게 아니고 정말 맹세하겠읍니다。』

『유서 몇장였어?』

『네, 솔직이 말하죠. 다섯장였읍니다。』

『뭐라고 씌었었어. 그 유서 지금 어디 있어?』

『없앴읍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사내는 체념한 것 같았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살아남기 어렵다는걸 눈치챈것 같았다.

『그럼 피해자 가족 때문에 자살한 게 분명 아니겠지. 네 눈으로 봤으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겠지。』

『네。』

『그럼, 술술 말을 해 보시지 그래。 턱주가리가 철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한 내가 좀 부수어버릴 참이니까。』

사내가 벽에 얼굴을 가리고 울먹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살은 분명 자살이었다. 여의사는 일생 전체를 배신 당한 꼴이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내와 결혼을 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했던것이다. 사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전방에 가 있을 때 여의사는 사내의 집안살림을 맡아 노인네들을 보살피고 장차 시누이가 될 계집애들 뒷바라지까지 해 냈다. 제대하고 나왔을 때 사내는 냄자보다도 작은 그것 두쪽뿐이었다. 여의사는 집안의 이단자가 되면서 변두리에 병원을 개설했다. 비록 전세로 시작한 것이기는 했지만.

부부의사의 명성으로 의원은 병원으로, 전세집은 4층 빌딩으로 바뀌었다.

사내의 바람기는 빌딩을 세우기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빌딩에 근사한 병원을 설립할 때에 가서는 극에 달할 만큼 심했다. 사내는 공공연하게 병원의 간호원 가운데 얼굴이 반반한 여자에게 살림을 내주며 이혼할것을 요구했다. 여의사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친정 식구의 눈총과 자식들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의 사랑에 대한 투자가 너무 억울해서이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보잘것 없는 사내의 뒷바라지가 이 따위 서글픈 결과를 가져오게 된 미움 때문이기도 했다. 남편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사는 꼴을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여의사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사내가 재산을 빼돌려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도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처절한 호소를 묵살할 만큼 지독스런 노랭이 짓을 하면서까지 재산을 챙겨 스물두살짜리 간호원과 도피할 궁리를 하고 있는 걸 알았다.

여의사는 남편과 담판을 시작했다. 사내는 여의사의 얘기를 무시한 채 여의사가 평생을 바치다시피한 병원까지 팔아 치우려고 했다.

여의사에게 남은 것은 약소한 위자료 정도였다. 이미 많은 액수가 빼돌려져 있었고, 스물두살짜리 간호원은 외국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의사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유서와 진정서를 남기고 가버린 것이었다. 사내는 눈치 빠른 사내였다. 여의사가 자신을 파멸 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고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늘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은 덕을 본 것이었다.

유서와 진정서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여의사가 남편에게 남긴 유서 가운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 한장만을 유일한 자살의 증거인 것처럼 남겨둔 것이었다.

『그래서 떠나시게 되셨군. 혼자 잘 처먹고 잘 퍼대고 살고싶다 이거군. 돈쓰고 빼써서 가서 뭘하나. 며 놀고 며 멋지고 그러면서 며 가기 쉬운 곳이 있는데. 황천이란 말 들어보셨겠지? 써 괜찮은 곳이지. 너같은 사람은 꼭 가봐야 할 거야. 대환영일 걸. 현수막 걸고 카퍼레이드 해줄 거야. 어때, 미국보다 황천 가는 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키는대로 다했잖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사내답게 약속하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지. 아암, 사내답게 약속하고 말고. 그런데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 서부활극에서도 뒤에서 총 쏘는 놈을 더 악당, 더 비겁한 놈 취급하지. 다만 뒤에서 총 쏴도 악당이나 비겁자 취급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애인 잃은 애된 여자, 부모를 악당에게 잃은 어린애가 그 원수를 뒤에서 총으로 빵 하고 갈겼을 때. 내말 알아들어? 개 쌍。』

나는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사내를 벽에 세워놓고 곰삭은 파김치처럼 만들어 버렸다. 사내가 축 늘어져 눈을 거슴츠레 뜨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너같은 새끼는 밤새도록 맞고 새벽에 세대 더 맞아야 돼。』

나는 사정 볼것 없이 사내의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앉은뱅이 떡 치듯 두들겨 팼다.

사내는 까무러쳐 누워버렸다.

『어이, 마담 아줌씨 일어나。』

마담이 눈이 신지 얼굴을 들리고 일어났다. 제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저 새끼 짓 거 알고 있었어?』

마담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왜 붙잡지 않았어. 너두 저 꼴 되기가 소원이라면 허튼 수작해도 좋아. 지금 난 주먹이 근질거려서 미치겠거든. 어때? 입 좀 놀려 보겠어。』

마담은 그저 죽는 시늉으로 하라는대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술집 남겨주고 가는 조건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애초 그럴 줄 알았으니까요。』

『이런 넋 떨어진 여자같으니. 이 술집이라고 남겨놓은 줄 알아? 이것조차 넘겨 버린 걸 왜 여태 몰랐어? 저 새끼가 뭐다 털어놓은 소리 못들었어? 정말 너같은 여자만 있다면 발바닥에 흙 안묻히고 살겠다。』

『네, 뭐라구요? 정말예요。』

여자는 호들갑을 떨며 되물었다.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를 쏘아보았다.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마담에게 사내의 죄업과 달아날 궁리를 낱낱이 얘기해주고 넋빠진 사내에게 전후 사정을 그 자리에서 자술서에 지독하게 만들었다. 사내는 내가 어째서 오른 손만은 다치지 않게 했는지 그 때서야 알았고 여자는 사내의 지독한 행위를 치떨며 들었다.

새벽녘에 마담은 사내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에 동의했다.

『시집 간 여자들에 대해선 마담 당신 스스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소. 무슨 말인가 알겠소?』

마담은 내 말대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술집은 당신 거요. 저 새끼한테 분명히 돌려받게 하겠소. 이건 어차피 당신 명의로 돼 있고 저 새끼가 위조해서 팔아치운 거니까。』

계획한 생각대로라면 마담에게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도 피해자인 셈이었다. 늑대에게 간을 빼앗긴 연약한 토끼 신세와 다를바 없었다. 간 빼앗긴 토끼의 귀를 잡아 혼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간만 빼준 것이 아니라 쓸개, 허파 까지도 빼준 셈이었다. 나는 최소한 그녀의 쓸개와 허파만이라도 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내 정의감과 주먹앞에 샌드 백이 되었다

봉투를 들려 朴씨를 찾아갔다. 큰돈을 받은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넌 여기서 배 부르게 살수 있지만 그동안 네게 당한 사람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돼. 그러니 네 손으로 네 재산의 반쯤을 갈라서 나누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해봐. 내가 제시한 조건을 들어준다면 정식으로 고발할 생각은 않겠다。』

사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입니까? 제가 원하는대로 하면 모든걸 없었던 일로 해 주시겠읍니까。』

워낙 다급했던 모양이었다.

『너같은 친구는 가버리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여기서처럼 악착같이 해치우는 건 말 않겠어. 번갯불에다 콩을 구워먹든 벼락치는데 피뢰침 들고 춤을 추든 말야. 가능하면 여기서보다 더 악다구니 써서 살길 바라마지 않겠다. 내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기만 하면 말이다。』

사실 나는 그가 얌전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떼돈썩하게 돈도 벌고 콧대높은 여자를 제맘껏 다루어도 내가 구체적으로 미워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오히려 그가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사내이기를 바랐다. 이 땅을 떠나서, 제발 이 땅덩어리 안에서만은 그따위 짓거리를 하지 말기를 바랐다.

내게 발목 잡힌 사내치곤 행운아에 속했다. 내가 어떤놈인데 그 정도로 풀려날수 있단 말인가.

『우선 너 때문에 파렴치범이 되어버린 집부터 해결하러 가자。』

마담과 나는 갑작스럽게 한패가 되어버렸다. 마담은 그동안 빼앗긴 욕됐는, 어쩔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면했다는 위안 때문에 내 편이 된 것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박씨는 눈을 휘둥그래 뜨고 웬일이냐고 물었다. 박씨는 사내에게 짜듯이 절을 했다.

『원장 선생님께서 며칠 동안 박씨 아저씨 문제를 곰곰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냈읍니다。』

나는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박씨에겐 어울리지 않는 거금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죽은 마누라가 아니라면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 만큼의 액수였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선 줄 모르고 원망만 했읍니다. 정말 제가 죽일 놈입니다。』

박씨는 봉투 속에 얼마쯤이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했다.

『우선 그 돈 가지고 논이나 몇마지기 사세요. 꼭 사세요.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지요。』

사내가 어왕 이렇게 된 것 인심이나 쓰자는 속셈에선지 어떻게 말했다.

『여부가 있읍니까. 흙 파 먹고 사는 놈이 말입니다。』

박씨는 봉투 속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마 박씨의 생전에 그렇게 크게 눈을 떠본 적은 없었을것 같았다.

우리는 박씨가 받아온 막걸리를 두어 사발씩 들이키고 나왔다. 박씨는 굽힐 수 있는 데까지 허리를 굽혔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는 자작스럽게 사내에게 공손해졌다. 사내가 머리를 끄덕이며 씨웃었다.

『그동안 저를 너무 잤다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박씨가 안보일 때까지 걸었다. 손을 흔들었다. 박씨가 동네 어귀에 나와 서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 그럼,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까 약속대로 도장이나 파고 통장이나 수두룩하게 만듭시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죄값에 대한 보상을 강제로라도 갚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는 표정이었다.

은행 앞 도장 파는 집에 가서 우리는 도장을 열아홉개나 팠다.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 온 타인 통장마다에 우리가 미리 약속한대로 돈을 입금시켰다.

『눈치 채지 않게 잘 좀 전해주세요。』

사내는 내게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코가 비뚤어지게 마셨다. 이튿날 저녁에 병원 침대에 누워 우리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다음호에 계속〉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巨儒 宋時烈 死去
□申叔舟 死去
□死六臣 처형

宋時烈 朝鮮朝 朱子學의 大學者, 한때 政界 投身도
申叔舟 訓民正音 창제에 功…端宗 復位때엔 背信
死六臣 端宗 復位 시키려다 좌절되자 壯烈히 殉節

▲숙종때의 巨儒 宋時烈 死去(1689·6·8) 宋時烈

本籍 宋時烈은 선조 40년(1607) 宋甲祚의 세째 아들로 태어나 沙溪 金長生에게 사사했다.

1633년 司馬試에 1등으로 합격하여 敬陵參奉이 되었다.

이어서 鳳林大君(후일의 孝宗)의 스승이 됨으로써 출세와 인연을 맺었다.

丙子胡亂때는 임금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나 화의가 성립되자 고향에 돌아가서 나오지 않았다.

仁祖가 돌아가고 孝宗이 즉위하자 掌令의 벼슬을 내리고 부르니 비로소 조정에 나갔다.

그후 王의 신임을 시기한 金自點의 무리가 淸나라에 무고하여 사임하였다가 다시 贊善을 거쳐 吏曹判書가 되었는데, 孝宗이 세상을 떠나자 장례때 大王大妃의 服喪문제가 제기되자 南人의 3년설에 대하여 1년설을 주장하는 그의 전의가 채택됨으로써 정권을 장악했다.

孝宗 다음의 顯宗도 그를 신임, 崇祿大夫에 특진시키고 이조판서에 判敎禁府事를 겸임시켰다.

그후 우의정·좌의정을 지치는 동안에도 服喪문제는 항상 말썽이 되어오던 중 숙종때 이르러서는 德源·鶴川등지로 귀양살이한뒤 풀려나와 領中樞府事로 다시 등용되었으나 사표를 내고 다시는 벼슬에 나서지 않았다.

1689년 왕세자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가 濟州에 流配되고, 이어 심문을 받기위해 상경도중 南人의 책동으로 井邑에서 賜死되었다.

그후 5년만에 조정에서 관작을 복구하고 시호를 내렸다. 道峰書院과 文正書院에 그를 모셨는데 그는 朱子學의 대학자였다. 귀양살이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술에 힘쓰고 학문에 열중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申叔舟 死去(1475·6·11)

세종20년(1438) 進士試·生員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親試文科에 급제하여 集賢殿의 副修撰이 되었다.

1443년 통신사 卞孝文의 書狀官으로 日本에 가서 詩名을 떨치고 귀국도중 對馬島에서 癸亥約條를 체결했다. 집현전의 수찬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세종의 명으로 成三問과 더불어 명나라 翰林學士 黃瓚을 유배지 遼東으로 찾아가 音韻에 관한 지식을 배워다 訓民正音 창제에 공을 세웠다.

1447년 文科重試에 급제하여 應敎에 특진하였고 이어 掌令·執義·副提學을 역임하였다. 世祖가 즉위하기전에 謝恩使로 명나라에 간일이 있는데, 후일 世祖와 각별한 처지가 된 개인적 친분은 이때 맺어진듯하다.

과연 世祖가 어린 端宗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을 때는 의리를 저버리고 이에 가담하였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成三問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成三問이 단종을 도로 임금으로 모시려다 실패하여 모진 고문을 당하는 마당에서 모욕을 당하였다.

그후 출세를 거듭하여 영의정에 올랐으며, 예종이 즉위하자 院相이 되었고, 이해·南怡의 옥사를 처리한 공으로 保社功臣 호를 받았다.

예종이 재위 1년으로 돌아가고 成宗이 즉위하니 또 공신의 호를 내리고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뛰어난 학식과 文才로써 〈國朝五禮儀〉〈東國正韻〉〈國朝寶鑑〉〈世祖實錄〉등을 撰修하였다.

▲死六臣 처형(1456·6·8)

死六臣은 조선왕조 6대 端宗이 그 숙부인 世祖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寧越에 가서 승하했는데 端宗은 世宗大王의 손자로서 大王이 극히 사랑하고, 당신이 돌아간 후에 어린 왕을 도와주라고 가까운 신하에게 당부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端宗이 비운을 당하자 世宗大王의 顧命에 감격한 예 신하들이 端宗을 다시 복위시키려다 發覺, 六臣은 그 信義에 보답하여 모두 장렬한 순절을 한 조선왕조 일대의 비극이었다.

특히 成三問은 先代王에 대한 충성심이 갸륵하여 여러가지 비장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는 순절하였고, 아버지 成勝선생도 함께 순절한것이다.

江南에 새 市街地

開浦·良才洞일대 2百萬坪

서울市, 9月着工

13만명규모…文化·商業중심지로

서울시는 11일 서울江南區開浦洞, 良才洞일대 2백70만평을 인구13만명 규모의문화및 상업중심의 전원적인 신시가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이날상오서울시를 순시한 南悳祐국무총리에게 朴英秀서울시장이 사정현황을 보고하는 가운데서밝혀졌다. 서울시는 開浦·良才洞일대개발계획을 7월말까지확정, 9월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2백70만평의대상지역중 하천과 유보지등을제외한 2백54만평의 개발가능지역을 도시설계 (Urban Design)방식으로집중개발, 계획인구 13만명,최대수용인구 18만명의 신시가지로개발한다는것인데 신시가지는 택지면적을 30%로 낮게잡고그대신 정부제2종합청사가 들어설 果川과永東,蠶室지역에부족한 문화,업무중심기능을보강하고 도시형 산업단지도 유치하기로했다.

또 약20만평으로된 소나무 떡갈나무 오리나무 수림대를 포함한 경부고속도로 양측및 良才川 수경(水景)녹지를 최대한으로 보존, 주거및 교육시설을공원과 연결키로했다.

또 취락구조를 개선한 3백20동은 최대한으로 보존하는한편 올해 서울시가 짓기로한 6천가구의 시영아파트중 2차 3천가구도 이곳에 건설하며 또 개발대상지역은 고밀화 한다는것.

시는 신도시개발과함께 앞으로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투입하고, 간선도로변에는 버스정류장용 포켓을 미리 설치하며 또 간선도로변 5m는 시설녹지로 지정, 길가의 상가난생을 미리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지역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및 증축, 수림식재 행위등을 일체 금지했는데개발대상지는 소유주와협의,매입 또는 장제수용,앞으로 2~3년안에 집중개발키로했다. 신시가지개발지구는 남부순환도로남쪽, 경부고속도로 동쪽의 永東,蠶室지구와 마주보며 길게 펼쳐져있는 水西, 逸院, 開浦,浦二,良才洞일대로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지난4월11일 주택개발촉진법에따라 건설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됐다. 개발대상지역은 九龍山,大母山기슭 표고25m의 구릉과 약32만평 침수지역 (평상홍수때)으로 이뤄져있는데 토지이용현황은 밭과논 65·9%,대지4·6%, 임야17·6%, 기타 11·9%의비율이다.

農業災害保險 단계적실시

어제夜間農水產委 "가뭄對策時期 늦지않았나"

'油類代 市·道知事판단아래 全額무상지원'

國會는 11일하오 2시 農水產委를 열고 高建농수산장관으로부터 전국의 旱害상황을 보고 받고 가뭄대책을 추궁했다.

이날회의는 旱害대책용 油類代의 무상지원의 한계와 대상農家 의원들과 農水產部장에 해서상의 見解差를보여 밤9시까지 논쟁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旱害對策用 油類代는 모두 전액무상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道知事가 그대상을 선정한다는것은 무슨 얘기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高장관은「한해대책에 사용한유류는국고50%, 지방비50%로 전액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없으나 市道지사등 지역 행정책임자의 판단하에 한해우심지역을 책정, 전액 무상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라고말했다.

이날회의에서 民正黨의 吉淇相 鄭鎬東 鄭石謨 安甲濬, 民韓黨의 安德一 池鳳道 上鉉 沈炳喆, 국민당의 金永光 趙一濟 金聖洙의원과 韓泰克(無)愼順範의원(民權)등은 각의원들에 ▲老朽한 양수기를 일제히 점검 정비해야하지 않는가 ▲送水호스를 PVC파이프 고압호스등 수명이 긴것으로 준비하여 道단위로 비축할 용의는 없는가고물었다.

이들 의원은 또 ▲양수기가 현재 50%의 프리미엄이 붙어 8만8천원을 호가하며 그나마 구입할수없는 실정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비묘판 설치등 가뭄대책시기가 너무늦지 않았는가 ▲여미 모를 심은논이나 발作物에 대한 가뭄대책과 가뭄뒤에 오는 冷害대책은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高建농수산장관은 답변을 통해 「양수기는 이번 한발을 극복한후에 耐久年限과 고장빈도를 等級化해 폐기하거나 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送水호스는 현재 邑面단위에서30%, 시군단위에서 70%를 보관하고 있는데 全量의 道단위보관은 어려울것같으나 지역별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모터등 揚水장비를 상공부와 협력, 農協이 메이커와 교섭을 통해 모터를 대당 4만8천3백50원씩 1만2천대를 계획공급키로 했다」고 밝히고 「冷害등가에대한 대여금상환은 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상환토록할방침」이라고답변했다.

高장관은 「농업재해보험제도는 현재 3개군에서 시험을 거쳤기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장기적인 한해대책의하나로 地下댐의설치를추진하고있으며 현재기술적타당성여부의검토를 위해 소규모지하댐설치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高장관은 「현재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하기위해 3년간계획을 거쳐내고 있는 기준으로 전국수리안전답의 耐旱능력을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잠정적인 추계로 전국의 수리안전율은 69%로 보고있다」고 답변했다.

高장관은 이어 「양수기資材 가격폭등을 억제키위해 기본 장비의 생산공장에서부터 본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官需用양수기의 공급을 원활히하기위해 일선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대폭인정해주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공급이되고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뭄뒤에 따져올지도 모르는 水害에 대해서도 건설부와 협의, 만반의대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질문·답변4면

湖南·南部지역 단비

최고54mm 일부 解渴

★기사 8면

이란中南部에 큰地震

強度6·9 死亡·매몰 3천名線

【테헤란11日AP=聯合】 이란동남부 케르만省일대에 11일상오 테헤란지진계로 강도6·9의 강력한 지진이발생, 1천~1천5백명이 사망했다고 현지관리들이 말했다.

현지관리들은 이밖에도 5~6백명이 부상을당하고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케르만省일대에는 지난 77년에도 강도 5·8의 강진이 습격, 약 5백80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이부상한바있다.

사고지점은 테헤란에서 8백㎞떨어진 케르만省都 동남쪽 70㎞지점인 골·바그마을인데 현지경찰들은 3천여명이실종, 매몰되었다고말했다.

사드르大統領 執務室포위

"제2의 팔레비" 處刑요구

이란 回敎徒

【테헤란11日UPI=聯合】 이란의 회교파격파 시위자들은 11일 온건노선의 바니·사드르대통령집무실을 포위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제2의팔레비라고 외치면서 그의 처형을 요구했다. 이날 회교파격파들의 시위는 이란회교혁명주도자 호메이니옹이 10일밤전격적으로바니·사드르 대통령의 軍총사령관직을 박탈한데 뒤이어 일어난것으로서 시위자들은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의 국외탈출을 막아야하며 그를 재판에 넘겨 처형해야 한다고 외쳤다.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시위자들의 소동이 벌어지고있을때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청사를 협의중이었다고 대통령 보좌관들이 전했는데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이날새벽 군총사령관직 자격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대이라크 전선시찰을 마치고돌아왔었다.

한편 또 다른 신단의 회교과격파들은 이날 테헤란 거리로 달려나와 팔레비전왕의 형상을한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초상화를 내다거는 한편 제2의 팔레비가 죽을때까지 혁명은 계속될것이라는 구호가적힌 포스터들을 붙여놓았다.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아직까지 자신의 군총사령관직 박탈에관해 아무런 공식논평도 하지않고있는데 호메이니옹은 후임군총사령관을 임명할때까지 군지휘권을 합동군사참모회의에 위임한다고발표했다.

★관련기사3면

全대통령제의 거부 北傀의 孤立가속화

홍콩紙보도

【홍콩11日=聯合】 한반도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全斗煥대통령의 최근 제의에 대한 북괴의 부정적인 반응은 平壤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이며 그들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이미 제3세계국가를 포함한 일부 우방국들을 잃어버리게 하고있다고 홍콩의 가장 영향력있는 영자신문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가 11일 논평했다.

이신문은 사설에서 全대통령이 분단된 국토의 평화적 통일을위한 회의장으로 金日成을 불러 내려는 또 한차례의 시도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全대통령의 두번째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Kipling-Dix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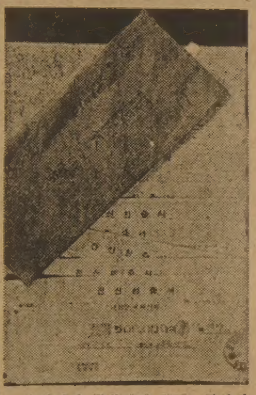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旱害 農民의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얼굴숨긴眞心 1천60만원 郵送

"나는 한국일보讀者일뿐" 끝내 이름 안밝혀



◇익명의 독지가가 한해 극복성금으로 본사에 우송해온 1천60만원의 전신환증서. 50만원권 21장, 10만원권 1장이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湖·湖南지방 농민들의 안타까운 한해극복 노력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11일 익명의 독지가가 「한해극복에 써달라」며 1천60만원의 성금을 본사에 우송해왔다.

「한국일보독자」라고만밝힌 이독지가는 11일하오 본사에 이성금을 서울鍾路우체국 발행의 전신환으로 보내온뒤 하오3시께 전화로 성금이 접수된것을 확인하고 「가뭄극복에 애쓰고있는 농민들의 의지에 조그만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성금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독지가는 「농민들이 양수기등 장비가부족하고 기름도 달리면서 어려운 지경에있다는 한해지역의 실상을 보도를 통해 알고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고말하고「이성금이 국민모두가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독지가는 전화를 받은 본사기자가 「보도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신분을 밝히는것은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여러차례 방문했으나「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일을 하는것뿐」이라며 끝내신분을 밝히기를 사양했다.

主婦生活社 百萬원

한편 이날 主婦生活社대표 金永聲씨도 1백만원, 東友낙시회장 趙永植씨가 3만3천원의 성금을 각각 본사에 기탁했다.

檢察、장티푸스接種 원인搜査

保健所 백신保管·注射경위등

장티푸스예방접종부작용으로 앓고있는 학생들중 22명이 아직 퇴원되지않아 입원중인데다 보사부당국의 원인규명마저 늦어지자, 검찰이원인수사에 나섰다.

春川지검江陵지청 徐廣圭검사는 11일 강원도三陟郡長省邑 鐵岩중학생들의 장티푸스예방접종 집단부작용 사고에대한 수사에 착수, 예방접종을 담당했던 三陟보건소소속 가족계획요원金玉春씨(33·여)등 3명의 보조간호원을 불러 주사한 백신보급상황과 주사경위등에 대한 조사를하고있다.

검찰은 또 이날상오 부작용으로 숨진 羅銀姬양(14·鐵岩中1년)의 사인을 가리기위해 시체부검도실시했다.

검찰은 부작용을 일으킨 학생들의 대부분이 주사부위가 크게 부어오른 사실을 밝혀내고 주사한 간호원들을 상대로▲백신주사량▲접종때사용한 바늘의 위생처리여부▲백신의 보관상태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三陟보건소와 鐵岩지소에는 보건소장마저 공석중인데 이번접종은 간호보조원金씨등 3명이 보건소에 예방접종계획을 제출, 보건소장이아닌 三陟邑장의 결재를 받아 접종을했음도 밝혀냈다.

숨진학생은 注射前에 앓아

保社部서 밝혀

장티푸스예방접종후 숨진 羅銀姬양 (14·강원長省鐵岩中1년)은 예방주사를 맞기 2일전 심한고열증상으로 앓아누워 결석까지했던 환자인데도 무리한접종을 했던것으로 밝혀졌다.

장티푸스예방접종수칙에의하면 활동성결핵환자나 열이있는환자, 신장질환자, 신장·간기능장애자, 병후쇠약자등은 금기사항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羅양의 경우 이같은 기본수칙마저 전혀무시했음이 드러났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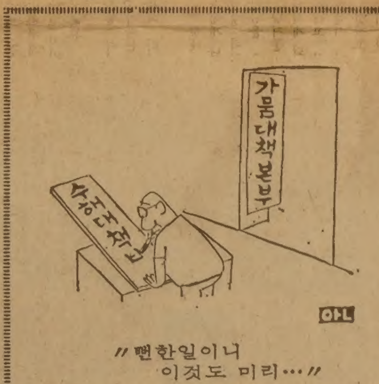
보사부당국은 11일 현재까지의 1차검정결과로는 예방백신자체에 변질등 이상이없는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12일중 경찰한 사고원인과 경위등을 공식발표하는 것과 함께 예방접종에대해 일어나고있는 일부 불신감을 씻기위한대책과 제도적인 점검을 거치는대로 예방접종을 곧재개할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인규명을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金基鎬보사부 공사長省병원에서 숨진 羅양의 시체부검을하고 羅양의 체액등을 채취해 서울로 보냈다.

한편 본사가 전화취재한결과 長省병원에 입원했던 부작용학생 1명은 10일하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지난9일 접종부작용으로 통병원외래에와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鐵岩중학교 朴春淑양(14·1학년5반)과 金桂玉양(14·1학년4반)등 2명이 다시 상태가 나빠져 10일하오늦게 다시 병원에와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병원측에 의하면 朴양과金양은 심한열과 두통·복통및 가슴이 답답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것.

社會漫評



″뻔한일이니 이것도 미리…″

地平線

가뭄과싸우면서 모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모를 일찍내야 수확이 많고 냉해에견딜수있을뿐아니라 때를놓치면 벼가 잘자랄수있기때문이다. 장마가오기는오는데 그전에 모를 내려는 노력은말하자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수있다. ▼시간이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처럼 빼저리게 느끼는때는없다. 교통요금마저 올라서인지 모든시간을 돈으로환산하게된다. 별생각없이 시내버스를 타면 1백20원, 뭘방짝 움직여 보는이라도 미리사면 1백10원, 같은 구간이라도 직행좌석을타면 3백50원, 택시는 기본료만해도 6백원이다. 게다가 택시엔 시간병산제를쓰자는 소식이 들린다. 이 일년에도 몇번씩 신문에 나오는 부산에라도 가게되면 시간이 곧 돈임이 더 확실해진다. 고속버스료 5천3백80원이 특급철도로 갈경우는5천2백원. 그러나 이경은 많이특급이지 사실은완행에 가깝고 진짜특급인새마을호는 1만2천3백원이며 그보다 더빠른 비행기는 2만4천6백원이다. 알고보면 교통산업이란 시각, 스피드를 팔고있는 셈이다. 승객은 이절약된 시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며교통시설이편할수록 그값도 달라지고있는것이다. ▼시간을 절약하는 산업엔 교통말고 省力산업, 家電산업, 食品산업등이있다. 불고기, 스테이크값같은냉동식품, 라면·자장면등 인스턴트 식품이우리나라에서 판을치기 시작했다. 파일 생선은 말할것없고 코피, 된장, 카레가 통조림으로 나왔으며 우유 또한 진공으로 밀봉한것까지 있다. 타임산업엔 시간 그 자체를 파는것도 있으나 상품이나 서비스로소비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며 여가를 즐겁게해주는 경향이 포함된다. ▼시간 그자체를 파는것의대표적인것은TV放送이다. 여러가지 정보자체가 돈이지만 TV방송의 광고시간을팔고 있는것을보면 시간이 돈이다하는생각은 더욱 뚜렷해진다. 행정대서, 사법대서도 시간을아껴주는 타임산업에속할수있고 稅務士, 會計士도그러며 장의사역시 마찬가지다. 여행사에서호텔안내, 항공표, 관광버스표판매를하고있는것도 결국은 시간을돈으로 아껴주는 셈이다. 이로독시간은 돈이면서 다른것과 바꾸기힘든 본성을가졌다. ▼정부에서는가뭄동안 자종단합대회나 체육행사, 농촌주민을위한 모든교육을 중지하라고지시했다. 天災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온국민이 제때에 힘을 한데 뭉쳐야겠다는 생각에서이다. 가뭄극복이 다급한이때 시간처럼귀하고 값비싼것이 없구나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되는끼때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65
은 : 온스당 US 10.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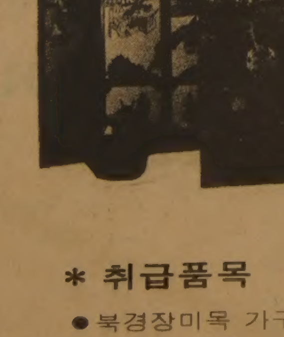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 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20%
할인 해드립니다. 언제나 20%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e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LEVEL
593-4208

이 용 석

사드르 軍統帥權 박탈

最高司令官에 팔라히(陸參次長)任命

權力鬪爭서 온건파敗北

호메이니直接장악 3軍總長회동후 발표

【테헤란11日AP=聯】이란회교혁명지도자 호메이니옹은 10일밤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의 이란군총사령관직을박탈한데이어 곧 대통령직에서도 그를 축출할지 모른다고 테헤란의 관측통들이 11일 말했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호메이니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바니·사드르대통령대변인은 그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작년이래 사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호메이니옹이 그의 사임을 받아들이지않았다고 말했다.

【테헤란10日AP=聯】이란 최고지도자호메이니옹은10일 아볼하산·바니·사드르대통령계일간지의 정간조치에 뒤따른 이란 정계강·온파간의권력투쟁과 관련,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군총사령관 직을 박탈하고 군통수권을 자신이 직접 장악했다.

이와동시에 모하메드·베헤슈티 이란검찰총장은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헌법위반혐의로 기소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란의회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근 권력투쟁에서 바니·사드르대통령이 이끄는 온건파가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테헤란11日AP=聯】이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은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군총수권을박탈한지 하루만인 11일 육군참모차장 발레훌라·팔라히소장을 對이라크전을 총지휘하는 이란군최고사령관 서리로 임명했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이같은 보도와함께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지난 5일간에 걸친 서부 케르만샤의 야전군 사령관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테헤란으로 귀환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회교강경파들과의 권력투쟁에서 궁지에 몰린 그가 아직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팔라히 소장의 최고사령관 임명은 3군참모총장들이 호메이니옹을 예방, 1시간동안 회담을 가진뒤에 발표됐다.

◇발트하임總長、黃華등 中共지도층과 會談

中共을 방문중인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11일 北京人民大會堂에서 外相 黃華㊨와 1차회담을 갖고있다.【北京11日AP합=聯】

韓半島문제 論議

발트하임-鄧회담

【北京11日AP=聯】중공을방문중인 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은 11일 중공당부주석 鄧小平및 외상 黃華와 연쇄회담을 갖고 ▲한반도문제 ▲캄보디아사태에관한 국제회의 개최문제 ▲아프가니스탄사태 ▲中東사태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日、3角防衛협력거부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韓美日의 3각방위협력은 가능한가.

이문제가 10일부터 美하와이에서 열리고있는 美日안보실무급회의에서 미국측에 의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미국을 축으로 한국은 군사동맹인 韓美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일본은 美日안보조약에 의해 군사적협력을 하고있다는 공통점에서 韓美日의 공동방위협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의 논리이다.

그러나 全方位외교를 펴고있는 일본은 평화헌법과 專守방위를 내세워 집단방위체제인 3각방위협력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美、原子爐 空襲가담

"早期警報機 침공때 유도"

레바논 左翼紙보도

【베이루트11日AFP=聯】사우디아라비아에 기지를둔 미국의 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지난 7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폭격과정에서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항로를 결정하는데 이용됐다고 베이루트에서 발행되는 유력 좌익지 아스·사피르가 11일 보도했다.

親시리아 리비아계의 이신문은 이날 1면기사에서 아랍및 동구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의 공습작전이 美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이과정에서 美AWACS가 이스라엘공군기들의 공격 루트설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스·사피르지의 이같은 보도는 바그다드에서 아랍제국외상들이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폭격사건을 토의하기위한 회의를 개막한것과 때를 같이하고있어 주목되는데 아랍및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이 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배후조종했다는 일부아랍국가들의 생각을 반영하는것으로 이로 인해 아랍연맹회원국들의 對美보복조치를 조장하게될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이라크 원자로에 대한 정보가 미국의 공유정보수집의 과학 위성에 의해 최초로 포착됐으며 그후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CIA가 모사드의 세부자료수집 활동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목표는 리비아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라크、對이스라엘 經濟 제재로 보복

【바그다드11日AP=聯】바그다드에 주재하는 외교소식통들은 이라크가 이스라엘의원자로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보복이나석유공수보다는 국제경제제재조치등 실제적인 행동을 강구할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말했다.

아랍外相회의 개막

對이라크 대응論議

【바그다드11日AFP=聯】아랍연맹외상들은 11일 바그다드에서 긴급회담을 개최, 지난주 이스라엘의 이라크핵발전소 공격행위에대한 집단대응책을 토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아랍외상회담 개최소식을 보도한 이라크 관영 INA통신은 회원국외상들이 아랍국가에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기위해필요한 저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中共、탕主敎임명 거부

"敎皇은 共産國 전복·파괴"…비난

【北京11日外信=聯】중공은 11일 로마교황청이 최근 도미니크·탕대주교를 중공廣東省대주교로 임명한데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부정적반응을 보임으로써 로마교황청의 對中共유화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공은 이날 천주교애국가톨릭단체가 발표한 성명을통해 로마교황청이 탕대주교를 廣東省대주교로 임명한것은 「비합법적」처사이므로 받아들일수 없으며 요한·바오로2세교황은 공산주의국가를 「전복·파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영新華社통신을 통해 보도된 이성명은 또 「교황청의 이번조치는 중공교회의 자주성을 심히 간섭한 것이며 이같은 일은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말했다.

중공은 현재 로마교황청과는 별개의 중공애국 가톨릭협회라는 독자적인 가톨릭기구를 운영해왔다.

이 성명은 또 탕주교가 작년에 개전의 情을 보인뒤 감옥에서 풀려나와 신병을 치료하고 친척들과 만나기위해 홍콩으로 가는것이 허락되었는데 아무런 허락도 받지않고 로마에 가서 「소위 대주교라는 자리」의 임명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또 「중공의 성직자들로서 탕주교의 행동은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그의 중공귀국을 허락하지 않을것을 시사했다.

波、民主改革派 승리

強硬派의 카니아 不信任案부결

黨中央委 전체회의폐막

【바르샤바11日AP=聯】폴란드 공산당내의 민주적 개혁파들은 11일 폐막된 이틀간의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당제1서기 스타니슬라프·카니아의 퇴진을 추진한 親蘇강경파 중앙위원들의 불신임공세를 표결로써 꺾고 강온파간의 권력투쟁에서 일단승리를 거두었다.

당의 계속적인 개혁을 주창해온 카니아제1서기를 중심으로한 개혁주도자들은 이번2일간의 회의에서 카니아와 보이체프·야루젤스키 수상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강경파들의 정치공세에 직면했는데 이같은 권력내분의 배경에는 지난주 소련공산당이 보내온 폴란드의 자유화경향에대한 경고서한을 둘러싼 강온양파간의 이견이 크게 작용했다.

2일간의 회의에서 정치국원 타데우즈·그라브스키를 비롯한 친소 강경파들은 카니아가 주도하는 현정치국 구성원은 현재의 국내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주장, 전체회의에서 정치국원 개개인에 대한 신임표결을 요구했으나 전체회의는 이제안을 반대89 찬성24 기권5로 부결시킴으로써 당내 자유개혁자들에 승리를안겨주었다.

風前燈火…사드르運命

軍統帥權박탈이어 起訴직전까지

◇바니·사드르대통령

◇베헤슈티최고재판소장

이란회교혁명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옹의 명령으로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軍최고사령관직에서 파직됐다. 三權을장악, 철저한 회교神政을 펴려는 회교성직자들과 맞서 2년가까이 패권다툼을벌여온 바니·사드르대통령의 운명이 풍전 등불의같이 꺼져들었다. 파리망명 시절 호메이니의 보좌관으로 그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온 바니·사드르는 그가 대통령이된 뒤에도 역시 호메이니의총애가 權力의 원천이 됐었다. 그런 바니·사드르가 돌연 호메이니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그를 따르고 떠받쳐주던 軍部의 최고사령관직에서 쫓겨났다.

지난80년1월 바니·사드르는 유권자 70%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선거유세에서 回敎革命評議會가 자행하고있는 고문과 회교독재, 그리고 정명을 신랄히 비난,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몰아오는데 성공했다.

回敎골수파와 깊은反目

新聞폐간후 衝突이 導火線…軍部도 등돌려

회교성직자들과의 반목과 불화는 바로 여기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회교성직자들은 그를『서구제국주의의 앞잡이』,심지어 『美CIA첩자』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바니·사드르에대한 호메이니옹의 신임은 아직 절대적이었다. 『종교가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것은 좋지않다』고 회교성직자들을 꾸짖을 정도였다.

사실 바니·사드르가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호메이니옹의 절대적인 지지와 총애가 뒷받침하고 있었기때문이다.

그해 7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2달 남짓 되는 9월, 이라크와 전쟁이 터지자 헌법상 軍최고통수권자인 호메이니옹은 그가 신임하는 바니·사드르를 軍최고사령관으로 임명, 對이라크 전쟁을 지휘토록 했다.

바니·사드르는 전선의참호속에서 이란軍과 함께 對이라크전쟁을 치르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軍최고사령관 바니·사드르 대통령에 대한 이란 軍部의 지지기반도 다져지고있었다.

이란중산층의 보루로 불려지고있는 軍隊는 체질적으로 서구지식으로 무장한온건한 바니·사드르를좋아할수 밖에 없었다. 회교혁명이 있은후 팔레비의 주된 지지세력 중산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결이 軍部를 휩쓸고지나갔었지만 군부에는 對이라크전쟁을 치러야하는 절박한 사정이 방벽이 되어 아직 바니·사드르와 호흡이 맞는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회교성직자들의 바니·사드르에 대한 도전으로 정쟁이 불꽃을 튀길때마다 軍部가 바니·사드르를 지지하는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들이 이같은 까닭에서 나올곤 했던 것이다. 그러한 쿠데타를 시도할 만한 人物은 이란軍총참모장 바리올라·팔라히장군이 될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였다.

바니·사드르가 믿고의지한 軍部는 그러나 그를 저버렸다. 10일 이란軍합동참모부는 호메이니와 회교헌법에만 충성을맹세했을뿐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충성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것이다.

테헤란성직자들은 바니·사드르가 결국 故 팔레비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골수 회교성직자인 아야톨라·베헤슈티검찰총장은 바니·사드르를 헌법위반죄로 회교재판소에 기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호메이니는 결국 바니·사드르의 대통령직마저 박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늙고 병들어 있으나 호메이니의 權力은 이렇게 강대했다. 호메이니의 버림을 받자 바니·사드르는 사면초가의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

회교헌법에의해 짜여진 이란혁명정부구조는 바니·사드르의몰락을 애초부터 예정해놓고 있었다.

집권당인 회교공화당(IRP)、의회、내각、사법부의 요직은 모두다 골수회교성직자들이 점유하고 있다.

바니·사드르의 최대의정적 모하메드·라자이와 아야톨라·베헤슈티가 각각 수상, 집권당인 회교공화당(IRP)의 당수다.

아야톨라·베헤슈티는 대통령탄핵과 정적의 재판, 신문의 정간·폐간을 결정할수있는 회교재판 소장을 겸임하고있다. 의회의 다수세력도 베헤슈티가 당수로 있는 IRP (40%). 여기에 20%의 세력은 IRP와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으로 짜여져있다.

이란정부군 (30만) 외에 IRP산하에는 5만의 혁명수비대를 갖추고 있다. 병력은 소수이고 훈련은 제대로돼있지않으나 회교이념으로 무장 무시못할 세력이다.

대통령은 각료의 최종임명권마저 갖고있지 못하다. IRP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바니·사드르가 자기세력을수상으로 앉히지못하고 골수회교성직자 라자이가 수상이된 것은 그까닭이다.

이러한 권력구조때문에 바니·사드르는 수상임명、美인질협상、이라크전쟁등 어느 것 한가지에도 소신을 펼수가없었다.

마침내 바니·사드르는정적들의 견제에 시달리다 80년 6월29일 호메이니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해줄것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호메이니는 어느일파의 독주만을 막는데 신경을 쓸뿐、분명한 답변없이사표를 반려했다.

어느파벌이든지 권력의 끈은 모두 호메이니의 손에 쥐어있었다.

바니·사드르계신문의 폐간을 계기로 일어난 바니·사드르를 지지하는 시위군중과 호메이니지지군중사이의 난투극이 도화선이되어 호메이니는 바니·사드르를 버리고 회교성직자쪽으로 눈을 돌려버렸다.

그러나 바니·사드르에대한 이란국내의 인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었으며 군부에 그의 지지세력이 남아있는이상 이란권력투쟁이 종결됐다고 보기는어렵다。【崔相鉉기자】

인사이드

아일랜드서 裁判받고 나오던 8명、교도관 권총威脅

IRA 集團탈주

【벨파스트10日外信=聯】북 아일랜드 벨파스트시의 크럼린형무소에 수감돼있던 8명의 에이레공화군(IRA) 게릴라들이 10일 법원에서 재판을받고나오던중 집단탈주했다고 영국정부의 북아일랜드 담당국무성이 발표했다.

북아일랜드 담당국무성은 이날발표를통해 크럼린 형무소에 수감돼있던 IRA게릴라 8명이 비밀리에 입수한 권총을이용, 집단탈주했다고밝히고 이들탈주범의 곤봉에 맞아 교도관1명이부상당했으며 이들의 탈주를 저지하던 다른1명의 교도관도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영국관리는 IRA게릴라들의 집단탈주가 외부의 지원을얻어 사전계획된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탈주범들이 교도소길건너편에 자리잡고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후 법원과 연결된 통로를따라 교도소안뜰에 들어섰을때 권총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탈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이 탈주범들이 벨파스트市 중앙에 위치한 크럼린교도소의 정문을 뛰어넘어 인근주차장에 있던 2대의 승용차에 나눠타고 쏜살같이 도주했다고 말하고 탈주범들을 추적하던 경찰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 목격자들은 법원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이 탈주범들이 탄 승용차에 총을 쐈으나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탈주범들이 도주할때 탔던 2대의 승용차중 1대는 벨파스트시 서부지역에 유기돼있었으며 다른 1대는 크럼린교도소에서 멀리 떨어지지않은 지점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탈주범들이 처음 도주할때 사용했던 2대의 차량을 버린다음 다른 차량에 옮겨탄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영국정부는 수백명의 군경을동원, 탈주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유기된2대의 승용차를 발견했을뿐 아직 범인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印度 大型列車사고

과속·定員초과原因

生存者들 주장

【카카리아(인도)11日AFP=聯】지난7일 인도북부에서 발생한 사상최악의 대열차사고는 과속과 정원초과로 인해 빚어진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겪은 생존자들은 11일 열차사고 당시 열차에는 너무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으며 열차가 폭풍속에서 다리를 건널때 너무 빨랐다고 말했다.

생존자 가운데 1명인 망간·자다브씨(35)는『내가바드라에서 열차를 탔을때 열차지붕에는 약5백명 가량이 올라타고 있었다』고말했다.

자다브씨는 그후 열차가다리가까이 도달했을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열차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팔과 다리에 기브스를 한 자다브씨는 『열차가다리를지나가다가 갑자기 정거했으며 몸이 하늘로 붕뜨는것같더니 강으로 거꾸로 떨어졌다』고 사고당시를 설명했다.

또다른 생존자인 사란다르·초라시아씨(25)도 『열차가 다리가까이 도달하면서 갑자기 속력이빨라졌으며 그다음엔 강으로 처박혔다』고 말했다.

오늘의 史 <12日>

▲韓國銀行창립 (1950)
▲라오스, 푸마首相아래 임시연합정부수립 (1962)
▲메사돈사건 政治문제화 (1965)
▲유엔총회, 核擴散禁止條約통과 (1968)
▲제3차남북조절위 서울서개최 (1973)
▲간디印首相, 선거법 위반으로 有罪判決 (1975)
▲오오히라·마사요시日首相死去 (1980)

메아리

輪禍 人禍

충돌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칼로 베듯 두동강이가 난 사진을 보고 섬뜩했던 기억이새롭다. 어제 아침 한국일보엔 더 끔찍한 輪禍사진이 실렸다. 고가도로 위에서 트럭과 부딪쳐 휴지처럼 구겨진 택시의 잔해다.

이쯤되면 人命在天이 아닌 「人命在車」의 시대에 몸서리가 난다. 이 사고가 난 같은 10일하오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선 또 하나의 輪禍비극이 발생했다. 세워둔 트럭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외동손녀를 살리려던 할머니가 치어 숨졌다.

「輪禍왕국」의 오명은 이렇게도 씻을길이 없는것일까…. 요즘 전국 도시마다 교통경찰과 단속요원들의 눈길이 날카롭다. 큰길에선 차가 잘빠지고 차도도 훨씬좋아졌다고한다.

잘 알려진대로 교통사고의 3대요인으로 사람, 차량, 도로환경을 꼽는다. 이중 으뜸 가는것이 사람의 잘못이다. 79년 교통사고 통계를 잠시 펴보아도 이사실은 뚜렷하다. 법규위반이 94.5%, 정비불량 0.2%, 피해자 과실이 5.3%가 된다. 따라서 人的사고가 輪禍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셈이다. 교통부에서 75년부터 80년까지 발생한 사고의 93.4%는 운전사 과실이라고 한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볼때 輪禍는 곧 「人禍」임을 쉽게 알수있다.

외동손녀를 구하려다 숨진 할머니의 죽음을 다시보자. 골목 비탈길에 세워둔 트럭은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었다. 마침 타고 있던 철부지어린이의 손으로 브레이크가 풀려 내리 구른것이다.

안일한 운전자의 부주의가 골목길을 두렵게 한다. 교통단속 한달간의 결산을 보면 질서지키기가 체질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다. 고속도로를 달릴때 가끔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리며 지나가는것을 볼수있다. 패트롤이 있다는 운전자끼리의 주의신호 교환이다.

눈가림만 하려는 질서의식이 엿보인다. 단속의 눈이 번득이는 큰길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골목길의 무질서같은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답하다. 自律의 질서를 키워야 한다. 他律的인 단속에만 의존하면 악순환은 되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PICTURE FRAME WAREHOUSES

"액자는 서정생활의 거울 알뜰한 꿈
품위있는 취미를 이 한틀에…"

영업시간 : (월·화·수·토) 9 : 30~6 : 00
(목·금) 9 : 30~8 : 00

* CUSTOM FRAMING 30% OFF
* 수천종류의 액자가 진열돼 있으며. 교포에 한해 진열상품의 액자를 1개 사실경우. 1개를 더 무료로 증정합니다.
* 빠른시간 써비스(24HOUR) * 각종 유화판매

☎ : 245-5122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AT ISLINGTON AVE.)

新風土記

最古의 鄕校 <全北 長水>

吳贊植 <作家>

鄕校는 朝鮮朝의 선비정신을 지키고 가꾸어온 한據點이다. 어느 고을이고 鄕校없는 고을이 없어, 옛先人들의 精神史의 脈을 이뤄온곳을 鄕校라 고할때, 長水에남아있는 鄕校는 가장 先輩되는 곳에 틀림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長水鄕校는 가장 오래 되기도 하였지만, 그 忠節과 義氣의 역사로서 더욱 빛나는 곳이다. 근본적으로 儒學정신이 바탕을 鄕校는 특히 君主에 대한 충성심을 으뜸으로 가르쳐왔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선비들은 나라위해 忠節을 지킴을 알았다. 朱論介와 丁敬孫은 長水鄕校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다.

壬辰亂때 거의 불타버린 전국의 鄕校였으나, 유독 長水鄕校가 불타지않은채 지금까지 남아 보존되어온것은 하찮은 종의 신분이었던 丁敬孫의 義氣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 鄕校는 太宗7년(1407)에 御命으로 先昌里에 처음 創建되었다가 35년후인 世宗23년(1442)에 지금의 자리(長水里)로 移建한후 현재까지 創建 당시의 원상태대로 보존되어온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鄕校이다.

鄕校의 막강은, 거슬러 올라가면 도며과 節義이 일세에 ㅡ 靑松을 周가, 쓰러지는 鹽朝를 떠받치다가 마침내 善竹橋에서 殉節했던 것을 상기한 李太祖가, 국초부터 斥佛崇儒의 국책을 세워 서울에 成均館을 세우면서 비롯된 것이다.

어떻게해서 전국 각 고을에는 鄕校가 세워졌으나 壬辰倭亂으로 거의 모두가 불타는 운명을 겪었다. 그런데도 유독 이 고장 鄕校만은 그 禍를 면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文廟守僕 丁敬孫이 계사적으로 倭兵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宣祖25년(1592)에 倭將이 長水를 침공 함락하고 入城해서는 文廟에 당도해 불지르려 했다.

그때 丁敬孫이 문을 굳게 닫아걸고 문앞에 꿇어앉아 五聖이 모셔진 聖域에 들어가려거든 내목을 벤 다음에 들어가라면서 버티었다. 죽음을 무릅쓴 항거를 한동안 내려다 보던 倭將은 그 義氣에 감복한 나머지 「本聖域勿犯」이라는 書文을 丁忠僕에게 주고 물러갔다. 그때문에 倭軍의 亂入을 경계할 수 있어 長水鄕校는 兵禍를 입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다. 壬亂후 다른지방에서 鄕校를 再建할 때는 언제나 이 文廟를 模範으로 하여 지었다고, 군청공보실의 林鍾煥씨는 설명하면서, 가뭄비상대책 때문에 그 곳까지 안내하지 못함을 못내 안타까와한다. 모질게도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농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통을 겪는모습을 보면서, 한가한(?) 여행을 하는게 여간 부끄러운게 아니었다.

邑廳과 인접해 있는 鄕校는 長水국민학교 정문을 비켜있는 골목 안에 있었다. 수백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老松몇 그루가 서있는 사이로 한식 맞배지붕이 綠色의 冠頭山 밑에서 막 淨上하는 장수 합처럼모습을 드러낸다. 평탄한 골목길에는 햇래를 담아인 아낙네들이 눈에 띈다. 집안에 수도나 우물이 있으나 斷水때문에 먼 냇가로 빨래를 나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뭄은 혹심하다. 50여까 흙담이 양쪽으로 도열해있는 골목길을 들어서자, 이내 丁敬孫이 지켰다면 鄕校가 앞을 가로 막는다. 鄕校 경내에 선 老松껍질이 부스럼 딱지처럼 일어나 있어, 그 연륜을 헤아릴수 없을 지경으로 위용을 자랑한다.

老松 꽉대기에 그물처럼 얽혀진 솔잎 사이로 비쳐보이는 하늘은 원망스럽도록 푸르렀다. 가뭄을 해갈시킬 비는 털끝만큼도 내릴기미가 없어보인다. 그 하늘을 원망스럽게 흘겨보며 鄕校문을 밀쳐보았지만 요지부동이다. 倭兵이 처들어온 것도 아닌데 굳게 닫혀진 문은 꿈쩍도 않는다. 그렇다고 넘어들어갈만 한 담 높이도 아니다.

사방을 둘러보지만 쉽게 들어갈 만한 허술한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10여분간 앞뒤로 헤매다 鄕校 바른쪽 담에 붙여서 지어진 집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양철대문이 활짝 열려진 집안은 너무 조용하다. 마당귀에서 풀잎을 쪼던 댓닭이 낯선 방문객을 보고 어깨짓에 풀풀거린다.

서너차례 주인을 찾다가 돌아서려는데 강그라져가는 목소리가 방안에서 울린다. 동시에 몸시 앓고난 듯한 푸쉬쉬한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내민다. 번데기가 무색하게 일그러진 이마의주름…. 알고 보니 그는 鄕校의 관리인 高光駿씨(48·장수리1구250)였다. 그는 어젯밤 물꼬싸움에서 이렇게 되었다면서 정경이와 가슴팍등 사방에 붙여진 파스자국을 내보인다. 흙녹한 가뭄이 몰고온 피해는 논바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안겨 준것이다.

13년간 鄕校를 맡아 관리해온다는 高씨는 농번기에는 어쩔수 없이 문을 닫아걸고 있다고 말한다. 일손이 바쁠땐 예물이 들어와 경내를 더럽혀도 말릴방법이 없다는것이다.

경내에 들어서보니 5백40여년전에 세워져, 長水땅에 忠義의 선비사상을 심어오던 鄕校는 퇴락한대로 이고장의 자랑답게 의연하게 서있다.

丁敬孫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불타버렸을 이 鄕校는 論介祠堂과 함께 長水의 상징이기에 충분했다. 물꼬싸움에 몸다친 高씨를위로하면서 명범내려지는 長水를 하직한다. 『大雨를 흠뻑 적셔줄 비좀 내려다오 제발!』

◇朝鮮初期에 세워져 壬亂에도 불타지않고 지켜내려온 長水鄕校。이고장 선비정신의 상징이며 자랑이다.

「老人」조사 한국인 一生은 子息위해 살아간다

晩年의 希望·苦悶·實態 한국갤럽 調査結果 분석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무엇을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안고있는 고민은 어떤것일까。또 그들이 이사회에 바라고있는바는 무엇인가。인간수명의 연장、대가족제도의 붕괴에따라 우리사회의 가장 특징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의하나로 대두되고있는 노인문제는 따라서 우리사회가 先決해야할 당면과제의 으뜸으로 등장하고있다。이같은 관점에서볼때 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鄭周永)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조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유사한 조사가운데 가장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라는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특히 내년에는 유엔이 주관하는「세계노인문제회의」가 열리며 갤럽에서 조사한 똑같은 문항을가지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태국등 5개국에서 같은시기에 조사를 실시、동서양의 노인문제를 비교한다는점에서 그의의가 크다。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는 노인의 가정생활、직업실태와 직업의식、사회생활、경제생활、종교생활、의식구조등 6개부분 38개항목으로 나누어 조사원들이 개별면접했는데 면접이 불가능한사람은 제외했으며 최고령자는 1백4세였다。

조사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직업을 그만둔 시기는 50대가 34·9%로 가장높고 60대초반이 31·9%、60대후반 13·1%、40대 9·3%의 순으로 직업을 그만둔 평균나이는 58·8세(남자 60·2세、여자 56·6세)였다。

배우자와의 동거율을보면 남자 82·8%、여자가 21·1%로 남자가 여자에비해 短命함을 보여주고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동거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또 현재의 동거가족은 95·7%가 가족과 동거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으며 동거가족은 배우자、결혼한 아들、손자·손녀가 높은편이며 미혼의 아들·딸、결혼한딸등의 순이었다。

노인들은 현재의 건강상태에대해 37·6%가「건강하다」고 답변했으나 34·4%가「아파서 누워지낸다」、28·0%가「보통이다」고 대답、노인들의 3분의1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아파서 누워지낸다」고 답변한 노인들을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40·3%로 남자의 27·9%보다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교육수준이 낮을수록、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노인들은 또 집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대부분이「집안일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응답했는데 상대답했으며「어느정도 잘한다」가 20·9%、「잘하는 편이 아니다」가 5·3%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의 사회생활도를 보면 종교활동、노인모임활동、사교모임활동등에서의 참가가 높고 정치활동、학습활동、스포츠활동에의 참가는 낮았다。

노인들은 종교의 중요성에대해 39·9%가「중요하다」고 인정하고있으며 16·0%는「약간중요하다」、19·0%는「별로중요하지않다」、23·8%는「중요하지 않다」(9%)가 남자(20·5%)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소유종교에대해서는 48·9%가「종교를가지고있다」고 대답하고있으며 그순위를 보면 불교30·8%、개신교11·7%、가톨릭3·1%의 순으로 되어있다。

노인들은 현재「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은 62·0%가 가족 또는 자녀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이 국가(16·7%)、재산(12·6%)、종교나 믿음(4·6%)의 순으로 나타났다。가족이나 자녀의 지적은 여자(71·6%)가 남자(52·9%)보다 높고 국가라는 지적은 남자(25·2%)가 여자(7·9%)보다、교육수준이 높을수록높았다。

노인들은 지금까지의 생활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일은 자녀나 손주탄생(17·2%)을 으뜸으로 치고있으며 다음이 자녀결혼(16·7%) 자신들의 결혼시절(9·8%) 일할때(8·1%) 자식키울때(6·4%) 자식성공(4·8%) 젊었을때(3·6%)등의 순으로 답변、자신이 관련된일(24·8%)보다는 자식과 관련된일(45·1%)에서 더행복을 느끼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또 행복했던일이 일어난 시기는「결혼부터 자식키울때까진」가 42·7%로 가장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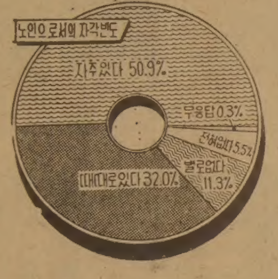
한편 불행했던일로서는 배우자가있는경우엔「건강이나 다쳤을때」가 11·4%로 가장높고「자녀사망」(9·7%)、「6·25」(9·4)%「가난한것」(6·5)%의 순이었으며 배우자가 없을경우엔「배우자사망」(22·8%)이 가장높고「자녀사망」(10·8%)「전쟁·다쳤을때」(7·8%)「6·25」(6·4%)「가난」(5·3%)「부모사망」(2·9%)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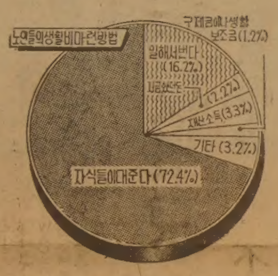
노인들은「동년배와 비교한 행복의식」에서、35·6%가「비슷하다·중간이다」、27·3%가「행복하다」、12·3%가「약간 행복하다」고 대답、「그다지 행복하지 않다」(16·4%)、「행복하지 않다」(7·5%)를 앞지르고 있다。

"자식낳고 키울때가 가장幸福"

83%가 全家族 同居바라…現實과는 큰 차이

대부분50代에職場떠나·"외로움느낀다"44%





다」①어렵다(36·3)②약간어렵다(25·5)③그다지 어렵지 않다(30·4)④전혀어렵지않다(7·4)

◇노인 생활의 개념이란

①직장을 그만둔후의 생활(5·7)②집안일이나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생활(13·8)③배우자를 사별한후의 생활(1·…)…생활(3·0)⑥건강이 쇠약해진 후의 생활(44·1)

◇노인의 역할로서 중요한것

①다른사람에 의지하지않고 독립해 살아갈수있는 능력(31·7)②가족이나 친척의 의논상대로도움을 주는것(34·7)③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것(4·1)④일에 관해서 다른사람에게 의논상대가…

◇근심·걱정거리

①건강이 나쁜것(43·8)②경제불안정(40·8)③재산분배(1·4)④가족과의 불화(5·…)⑤이성관계(0·1)⑥사는 보람이없는것(7·6)⑦친한친구가없는것(2·0)

◇젊은이와의 의논상대

①배우자(35·8)②형제·자매(2·4)③아들(54·2)④딸(17·0)⑤사위나 며느리(21·8)⑥이외의 다른친척(2·7)⑦이웃(4·5)⑧다른친구(0·8)⑨신부·목사·스님(0·7)⑩상의할사람없다(11·6)

◇젊은이와의 능력비교

①노인이낫다(4·3)②비슷하다(4·6)③노인이못하다(87·5)

【丁熙기자】

◇집안의 웃어른이었던 노인들이 이젠 가정과 사회의 관심권밖으로 점차 밀려나고 있다。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젊은이들이나 정책당국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이밖에 설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괄호안 수치는 %)

◇자손과의 동거희망여부

①자식·손자온가족이 모여함께 사는것이 좋다(83·3)②자식·손자들과 자주만나서 식사하거나 이야기하는정도(5·7)③자식·손자들과 가끔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4·2)④자식·손자들과는 따로 떨어져생활하는것이좋다(0·8)

◇노후에 돌보아줄사람

①배우자(18·9)②아들(55·4)③딸(5·7)④며느리(11·3)⑤누이나동생(0·3)⑥이외의 다른친척(1·8)

◇뒤입하기를 바라는이유

①돈이필요해서(67·2)②일하는게 즐거워서(15·2)③친구들과 사귈수있어(1·5)④일하는게 건강에좋아서(15·2)

◇생활비마련방법

①일해서번다(21·8)②국가연금(1·7)③저금해둔돈(3·5)④재산소득(5·5)⑤자식들이 대준다(78·2)⑥구제금이나 생활보조금(2·0)

◇노후의 생활비는 어떻게마련하는것이 좋은가

①젊었을때저축(40·3)②가족·자녀들이 대주어야한다(49·4)③사회보장제에의한 보장(8·2)

◇생활하는데 어느정도 어려운가

…④이웃들이 경로의식(…)…5)

…외로움을 느끼는…(8·1)

◇외로움의 자각빈도

①자주있다(28·3)②때때로있다(25·8)③별로없다(29·4)④전혀없다(16·0)

◇노인으로서의 자각빈도

①자주있다(50·9)②때때로있다(32·0)③별로없다(11·3)④전혀없다(5·5)

年上女와의 結婚

千字春秋

趙一文 <建國大 총장>

중국에도 그런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있다。옛날에 하느님이 사람과 짐승에게 각각 30년의 수명을 내렸다。그랬더니 짐승들은 일제히 울상을 지었다。그 고달픈 생애를 어떻게 그토록 오래 끌고 가겠느냐고。그러나 사람은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좀더 [illegible] 애원했다。자비로운 하느님은 [illegible] 승들이 반납한 수명을 [illegible] 주었다。

최근 경제기획원이 [illegible]「한국인의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 [illegible] 평균수명은 65세。에 [illegible]

[illegible]

이상의 과부 생활을 해야 하는 계산이 된다。그 외롭고 지리한삶을 어떻게 견디어 나가겠는가?

흔히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고 한다。그러나 생과 낙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중요한 것은 고통을 함께 견디는 일과 함께 죽는 일이다。그게 바로 부부가 공동으로 짊어지고 나가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물론 생사는 하느님이 정해준 운명、사람의 힘으로 좌우하기란 어렵다。그러나 부부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하기는 [illegible]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도 거기에 [illegible] 바랄 수는 없다 [illegible] 기보다 나이 위이거나 동갑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illegible] 우리나라에서 [illegible] 가 되어 혀에서는 [illegible] 을 돌보고 [illegible] 의지 하다가 [illegible] 생의 [illegible] 다。

한국일보 詩壇

六月 바람아

安 [illegible] 初

바람아
한달음에 두드둑
움켜잡으려면
새털보다도
가벼이 빠져달아나는
애틋한의 精。

一딱딱한 의자가
좋으세요?
一푹신한 의자가
좋으세요?
붙어도 붙어도
여린 꽃이파리 하나
펄구우지 않고
꿀도 없이
맴돌다 돌아서는
六月 바람아。

제1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의 초대

녹음 우거진 청량의 계절, 하시는 사업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일보—토론토사 제정, 한인민족상운영위원회 주최 제1회 한인민족상에 영예의 수상자로 선출된 아래 4씨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복된 자리에 빛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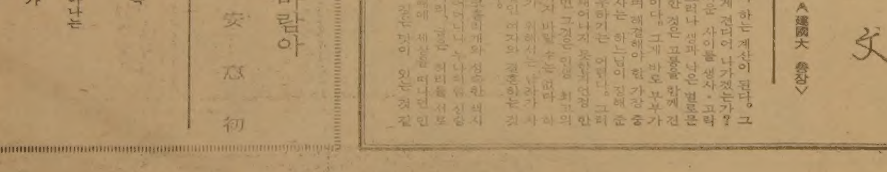
— 아 래 —

때 : 1981년 6월27일(토) 상오11시
곳 : 토론토한인회관
(20 Mobile Dr. Tor.)

수상자 : 예술상—박재훈·김용순
공로상—전택균
봉사상—장근수

※식후 다과파티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9일)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원범 536-2155·2156 (R) 429-7580

脫走주범 李相勳은 정말 억울한가

檢察,수사전모발표…脫走빚은 칼부림 再搜査

◇풀려나는 두女人 탈주공범 盧隱相의 내연의처 文仁子씨(左)와 馬泓植의 부인 徐斗來씨가 자수 46시간만에 검찰에서 풀려났다. 수사전모가 발표되기직전 석방된 徐씨가 공중전화박스에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나오고 있고 文씨는 택시를 잡으려 하고있다.

경찰 刺害劇에 엇갈린 主張
前科者 辯訴도 경청돼야
法曹界

탈주주범 李相勳(27)은 엉뚱한 죄까지 뒤집어쓰게 된것이 억울하고 그 누명을 씌게 한 밀고자에게 보복하기위해 탈주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지난1월24일 서울龍山區梨泰院洞123 해밀턴호텔 주차장에서 날카로운 생선회칼로 형사를 찌른게 자신이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李는 자신의 결백을 경찰의 수사과정, 검찰의기소단계에서 누누히 변소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고 법원심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가 사회보호법에따라 막중한 감호처분까지 받게 되자 탈주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11일발표 수사전모를 밝히면서 李의 변소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李의 「칼부림시비」는 경위와 곡절이 어떻든 일단 실체의 진실을 재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전과자의 인권」을 다시 생각해보는 뜻에서도 그렇다.

★관련기사 10面

搜査결과발표 의문점 아직남아

李는 지난1월24일하오8시께 해밀턴호텔앞에서 자기들을 잡기위해 출동한 서울南大門경찰서 형사계 金松元순경(28)과 金明鎬순경(37)을 탈주공범 馬泓植과함께 생선회칼로 손을찔러 중상을입힌 혐의로 검거, 모두 1백14회에 걸쳐 소매치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런데 李가 주장하는것은 상습소매치기 혐의는 시인하나 金순경등과의 격투중 칼로찌른것은 자기가아닌공범 강현수(수배중)였다는것.

서울지검南部지청의 기소장에는 「피고인 李相勳、馬泓植은 강현수와 공모하여 81년1월24일밤8시45분께 해밀턴호텔주차장에서 동인을 검거하기위해 대기중인 순경 金明鎬·金松元등이 검거하려하자…(중략)…李相勳은 金松元을 밀어넘어뜨리고 생선회용 식칼로 왼손을찔러 전치5주의가료를요하는열상및 좌행상을입혔다」고 돼있다.

이 공판기록상으로는 李가 경찰관을 찌른것으로 돼있으나 李의 주장은 공범인 강현수가 찌른것이니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강현수는 이들과80년11월부터 대우파를 조직한 공범으로 일당중 일꾼(돈을 훔치는역할)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허갈은 李의 주장은「결백」

한편 이에대해 검찰은 李가 칼로 찌르고 안찌르고는 중요한 범죄구성요소는 아니라는 견해를밝히고있다. 『일단 면밀히 검토하고는있으나 설령 李가 형사를 찌르지 않았다해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돼 죄질의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다』는것.

李相勳 왼손만 手匣 포승도 한번만 묶어
—檢察발표, 새사실別無

법정집단 탈주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南部지청 都台求지청장은11일하오10시 자수한 탈주 주범 李相勳등 일당 5명과 李의어머니 金玉允씨 경과 수갑을 푼수법등 탈출과정등에서 새로운 사실이드러났다. 발표에 의하면 재판이 있었던 지난5일 탈주 주범 李

또 주범 李는 구치소내의 식탁보비닐을 잘라내 이빨로 2등분, 그중 1개는 출정전 南部지청 구치감안에서 점심식사때 수갑이 안채워진 오른손쪽 수갑에 끼워넣었다.

盧隱相역시 구치감안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수갑 구멍을 눌러서풀고 종이를 말아끼워넣어수갑을 헐겁게했으며 馬泓植은 구치감식당 바닥에 있던철사조각으로 수갑구멍을 눌러풀고 대나무조각을 끼워넣어 수갑이 헐거워지도록했다.

또 李亨基는 李相勳으로부터 비닐을 전네받아 재판당일 점심식사때 수갑에 끼워두었다.

탈주범들이 교도관을 위협한 사제칼은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주범 李가 구치소 운동장에서 주운 李와 요대용 금속 4개로 만들어 2개는 보관하고 2개는 지난달29일 盧隱相에게 전했다는것.

盧는 李로부터받은 칼 2개를 감방화장실 시멘트바닥에 갈아 만든후 지난5일 재판전 南部지청구치감안 화장실에서 馬에게 전했다.

또 李相勳은 지난3일 쇠심을 갈아 칼2개를 만들어 탈주당일 구치감에서 점심식사를할때 李亨基에게 1개를 전했다.

李相勳은 출정때 요대에

요대·運動靴밑창에 칼 교도관과 共謀 없었다

숨겨 구치소를 떠나기전과 南部지청 구치감에 도착 대기했다가 출정하기직전 모두 교도관들이 감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탈주범들이 사용했던 칼 4개는 탈주직전 붙잡힌 李亨基에게서 1개, 범인들이 버리고간 말취택시안에서 李相勳과 馬가 사용한 칼2개등 모두 3개가 회수됐으며 나머지 1개는 馬가 安養川에 버려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이 탈주할당시 상황은 교도관 3명이 계호해 법정문을 나서 약5m쯤 갔을때 盧가 칼을 꺼내면서 『야 비켜』라고 큰소리로 외쳐 교도관들이 주춤하면서 풀려서는 순간 馬가제일 먼저 포승을 풀고담을넘었다.

뒤이어 盧가 담을 붙잡고 오른쪽발은넘고 왼쪽발이 미쳐 넘지못해 교도관이 왼발을 붙잡았으나 뒤따르던 李相勳이 『야』하고 고함을 치면서 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교도관이 엉겁결에 붙잡았던 손을놓고 주춤물러서자 盧와 李가 담을넘어 달아났다는 것.

검찰은 이들이 탈주당시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담밑의사과궤짝은 『사용된바가 없었다』고밝혔다.

한편 주범 李가 대검에 자수했을때 『강현수에 대한 억울함과 李在述씨에 대한 복수』라고 밝혔던 것이 이날 발표에서 빠졌는데 이에대해 南部지청은 『대검발표는 李가말한것을 그대로 발표한것이고 자수후 지청수사결과 탈주동기가 그같은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명의 妻는 석방
主犯李어머니도 不拘束 처리키로

한편 검찰은 수사전모를발표하기에 앞서 함께 도주했던 盧隱相의 내연의처 文仁子씨, 馬泓植의 부인 徐斗來여인과 李相勳의 어머니 金玉允씨를 각각 석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수했고도주한 범인과 처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에 있어 죄질이 처벌저각사유는 없으나 사실상 내연의처로 인정받은 것이다.

강현수를 검찰手配

한편 검찰은 李의경배주장에 관련「강현수」를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현수가 본적과 주소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31세가량이며 지난해 11월20일 冠岳區舍堂洞 현대다방에서 학경호(35)와 소개로만나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같은달 24일 롯데호텔 신세계화점부근에서 소매치기를 한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李相勳과함께 경찰관에게 강은또 해밀턴호텔앞에서 붙잡혀 두고도주했으며 李가 仁川에서 체포될때도 함께있었는데 체포하려하자 李와 馬등과함께 택시운전사를 칼로 위협 약5백m가량 가다 전사가 파출소앞에 차를멈추자 뛰어내려 도주했다는것.

검찰은 李가자수한뒤 강을 찾기위해 컴퓨터로 명인을 찾는등 추적했으나 지까지 완전한 인적사항을 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밀턴 事件 法曹界 견해

진상조사는 李가 피한 할것이다. 【鄭棋哲기자】

文彦鎬변호사는 검찰의 전해들지, 『이경우 누가찔렀느냐는것은 크게 문제되지않는다』면서 『다만 李가 찌른게 아님이 입증되면 재판부에서 정상참작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진상은 밝혀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변호사는 『李가 여울한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부가 가려내주어야겠지만 이 사회문제화된만큼 기소한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게 좋을것같다』는 의견을 폈다.

張淑旭 변호사는 『전과자이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죄인이라도 저지른 죄만큼만 벌을 받는게당연하므로 재판중이라도검찰이재수사를해야할것이다』고밝혔다.

張변호사는 또 『경찰이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전과자의 변소가 무시되는 풍토가없지 않으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맡은 검찰로서는 「실체의 진실」을 밝힐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재판부는 李가 지난번 공판과정에서 변소를 하면서 「강현수」라는 어휘를 말한적이 한번도 없고 다만 범죄사실을 부인했을 뿐이라고 지적, 李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보려는 노력에 불과한 부분의 누명을벗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결국 李가 진범이 따로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있어난것인데 입증 실체적 진실이 없는 이어보면 제대로 그 가대한 것 이었다고 주장하는만큼 철저한

또 탈주극을 벌인 李가 현실적이 면 어떻게 보면 성장 한 마지막 카드로 이었다는 사재판의 한계를 잘알고있는 李가 쥐할수있는 마지막카드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李의 이같은 변소에 대해 갈우범을 당했던 두형사는 『현장을 흐어보려는 상투적수단』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반가운비 곳곳에 쏟아져

南部지역 오늘도 계속내릴듯
麗水·木浦등 30㎜넘어 일부地域 갈증해소

혹심한 가뭄이 계속되던 영호남 지방에 해갈의 단비가 내렸다.

지난9일부터 연3일간 흐린날씨속에 이따금씩 감질나게 뿌리던비가 11일 하오부터는 전국적으로 내려 12일 자정현재 南海지방의 54㎜를 최고로 麗水34·9㎜ 木浦32·4㎜ 群山30·8㎜ 光州29·6㎜ 西歸浦29·4㎜ 晋州26·2㎜ 釜山26·9㎜등 남부일부지방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강수량은 밭작물은 해갈 시켰지만 논농사에는 흡족하지못한것이다.

중앙관상대는 12일에도 기압골의영향을받아 전반적으로 흐리며 남부지방은 한차례비가 내려 극심한 가뭄의고비는 넘기겠으나 중부지방은 아직도 갈증은 가시지 못할것으로 전망했다.

11일부터 12일자정까지 내린 각지방의 강수량은 다음과같다. (단위㎜)

▲仁川=1·3 ▲서울=2·0 ▲水原=5·6 ▲春川=5·6 ▲瑞山=9·0 ▲大田=16·0 ▲淸州=8·8 ▲東草=2·0 ▲江陵=9·4 ▲蔚珍=7·4 ▲群山=30·8 ▲全州=16·6 ▲光州=29·6 ▲木浦=32·4 ▲麗水=34·9 ▲濟州=4·2 ▲西歸浦=29·4 ▲浦項=11·0 ▲晋州=26·2 ▲忠武=17·0 ▲釜山=26·9 ▲蔚山=19·7 ▲南海=54·0

새한칼라현상소
결혼·돌·회갑 출장촬영
스튜디오 완비(각종증명사진등
630 Bloor St. Tech Photo Finishing Lab.
(B) 535-7772. (R) 741-2842

◇비가내려 메마른 논바닥을 적셔주자 농민들은 활짝웃으면서 못단을들고 논으로 들어서고있다. 【전남寶城郡寶城邑—金海雲기자】

梨大生 둘拘束
示威선동 혐의

서울西大門경찰서는 11일 梨花여대생 趙起淑양(22·무용과4년)과 金廷信양(22·정외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4일 정오께 교내동창회관 6층옥상에서 유인물 3백여장을 뿌리며 메거폰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했다는것이다.

過速포니 승용차에 무단橫斷여인 轢死

11일 하오 9시께 서울江南區盤浦2동山60 앞길에서 盤浦쪽으로 달리던 서울2나1222호 포니승용차(운전사 吳甲東·44)가 무단횡단하던 33세가량의 여인을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일새벽숨졌다.

보복위한 脫走도 아니었다
動機부분등大檢·支廳큰차이
食卓보비닐·젓가락利用 수갑풀어

(53)등 관련자 8명을 집중수사한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따르면 탈주 범행계획은 자신들의 죄과와 감호처분등에 따른 장기복역을에상한 심리적동요와 자포자기등 지금까지 밝혀진사실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범행모의과정에서

相勳은 특별계호대상자였지만 특히 자창이 좋지않고 피부병이 있어 환자로 취급, 왼쪽손에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한번만 묶었으며 馬泓植은 수갑을 채우고 한번 포승했으며 盧隱相, 李亨基

갈2개를 숨겨갖고 나왔으며 盧는 운동화밑창속에 칼2개를 숨겨갖고나와 각각 李亨基와 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며 이들 4명은 구치감에서 각각 허리춤에 칼을숨겨 입정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지난5일 탈주범들이 재판을 받기위해 구

몸수색을했으나 흉기를 발견하지못했다고 밝히고 수사결과 교도관들의 직무태만은 인정되지만 탈주범들과 공모한 사실은 전혀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치감에서 李相勳과 李亨基、盧와 馬등이 같은방에 수감된것은 사실이나 구치소내에서 같은방에

美、신경통特効 開發
환자의피부속에이식 電波로自律神經조정

【콜럼비아(美메릴랜드州)】

공기拳銃 1정盜難
東仙洞 오락射擊場

11일낮12시께 서울城北區東仙洞1街1 성북사격장(주인 朴魯英·46)에서 사격연습용 공기권총1정(싯가20만원)을도난당한것을 종업원 朴貞珠양(2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게므론 고단위 종합영양제 대웅제약

1주년 기념 여름특별세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사에서는 개업 1주년을 맞아 교민을 위해 여름 특별세일을 하고자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진 모 올림

장 소: 629 BLOOR ST. W.
(B)531-2236 (R)282-2369
세일기간 : 6월8일부터 7월5일까지(1개월간)

블루어안경점

11회 대통령盃國際축구 내일開幕

參加國 팀컬러다양 大會수준 格上시켜

優勝향방 점치기 어려워 12팀 A·B組나눠 리그戰

제11회 대통령盃쟁탈 국제축구대회가 한국의 花郎을 비롯, 12개국팀이 출전한가운데 13일 하오3시반 한국—프랑스 전을 스타트로 개막, 26일까지 14일간에 걸친 열전에 들어간다.

花郎도 예선통과 장담못해

◇花郎의 必勝훈련 대통령盃 대회를 이틀앞두고 花郎 선수들이 道路公社 잔디구장서 연습하고있다.

대통령盃 국제축구대회는 …사. 이번대회의 우승후보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블로스·업되고있는 우루과이(다누비오)와 아르헨티나(라싱메코르도반)는 지난 8일 내한하여 본격적인 적응훈련을 하고있으며 나머지 브라질(비로리아) 西獨(자르부리켄) 프랑스(샤토·루) 리히텐슈타인, 말타, 日本, 말聯, 泰國, 印尼등 9개팀도 11일 모두 서울에 도착, 엠배서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대회출전 12개팀은 예선A조(한국 일본 말聯 西獨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B조(泰國 印尼 브라질 말타 리히텐슈타인 우루과이)로 나뉘어 13일부터 22일까지 예선리그를 벌인후 A·B조의 1, 2위팀이 결선에올라 24일에 준결승전을갖고 26일에 대망의 결승한판을 벌이게된다. 특히 14일부터 21일까지의 예선경기는 大田 全州 大邱 釜山등지를 순회하며 벌어지게된다.

어번대회에 출전하는 외국팀의 컬러는 역대 대회를 통해 가장 다채롭다는게 축구인들의 이야기이다. 유럽의 1級 프로팀을 초청하지못했지만 지난2월 골드컵대회서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팀과 창단50년을 맞은 우루과이의 명문 다누비오를 불러들임으로써 대회수준을 크게 올려놓았다. 출전팀들이 생소한데다 전력이 전혀 노출되지않은 상태여서 우승의 향방을 점치기는어렵지만 각팀코칭·스태프는 예선통과를 목표로 사력을 다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전력이 약화된 홈그라운드의 花郎은 예선에서 아르헨티나, 西獨, 프랑스, 호적수인 日本, 말聯과 격돌하게 되어 자칫하면 예선에서 탈락할지도모르는 불안한 입장에있다.

71년 張德鎭 축구협회장의 아이디어로 창설된 대통령盃국제축구대회는 동남아가 주축을이루고있던 아시아 축구판도를 한국으로 …

지난 10차례의대회를 통해 한국은 단독우승 4차례, 공동우승 2차례로 가장좋은성적을 올렸고 버마와 브라질이 각자 3차례씩우승(공동우승포함), 크메르가 73년 대회때 버마와 공동우승을차지하여 화제가 되기도했다. 75년 5회대회이후 한국의 초청을 거부해왔던 日本이오랜만에 대표팀을파견 한것도 특기할만한일.

…을 목표로하여 … 수준이 떨어져 상당한 … 을 거었으나 지난해 대회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초청외교에 힘을 기울여 10회 대회때보다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대통령盃 대회의 창설목표를 살리기위해 實보다는 名을 우선으로 팀을 엄선하여 초청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으며 격년제로 대회를 열면 유럽과 중남미의 일류팀도 초청 하기쉽다는 견해도있다. 많은 외국팀을 초청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상금으로 전용한다면여러나라에서 이대회에 관심을 보일것이다.

◇역대 대회전적

회	1	2	3	4	5	6	7	8	9	10
참가팀	8	8	6	7	8	10	9	15	10	6
우승국	한국 버마	버마	버마 크메르	한국	한국	한국 브라질	브라질	한국	브라질	한국
준우승국	—	인니	—	인니	버마	—	한국	미국	한국	인니
3위	인니	한국	한국	버마	이란	중무	말레이 한국	중무	바레인	중무

◇경기日程 ▲6월13일(서울) ▲개막 한국—프랑스(3시) 일본—서독(5시15분) ▲14일(大田) ▲인니—브라질(1시반) 리히텐슈타인—말타(3시15분) 우루과이—태국(5시) ▲15일(大田) ▲프랑스—말련(1시반) 일본—아르헨티나(3시15분) 한국—서독(5시) ▲16일(全州) ▲우루과이—인니(1시반) 태국—리히텐슈타인(3시15분) 말타—브라질(5시) ▲17일(全州) ▲아르헨티나—서독(1시반) 프랑스—일본(3시15분) 한국—말련(5시) ▲18일(大邱) ▲말타—태국—… ▲19일(大邱) 리히텐슈타인—… ▲19일 … 프랑스—서독(3시반) 한국—아르헨티나(7시) ▲20일(釜山) ▲태국—인니(1시반) 리히텐슈타인—브라질(3시15분) 우루과이—말타(5시) ▲21일(釜山) ▲말련—서독(1시반) 프랑스—아르헨티나(3시15분) 한국—일본(5시) ▲22일(서울) ▲인니—리히텐슈타인(3시반) 태국—말타(5시15분) 우루과이—브라질(7시) ▲24일(서울) ▲준결승(5시부터) ▲26일(서울) ▲3、4위전(5시) 결승전(6시45분)

伊양궁 첫날

한국、女단체 2위나서

黃淑珠 6百점…개인3위 힘입어

【폴타알라(이탈리아)10日頭=聯合】한국의 黃淑珠는 10일 이탈리아의 폴타알라에서 개막된 제31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첫날경기60·70m에서 6백점을 기록 英國및中共에 이어 여자개인 3위를 마크했다.

한국은 黃의 활약에 힘입어 여자단체종합전적에서 1천7백85점을 획득, 1천7백98점을 기록한 中共에이어 2위를 마크하고 있다.

이날의 여자 개인경기에서 英國의 폴린·에드워즈는 6백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中共의 판·애·명은 黃보다 2점이 많은 6백2점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한편 남자개인 경기에서는 蘇聯의 알렉산더·가벨코프가 6백12점으로 단연선두에 나섰으며, 핀란드가 6백3점으로 2위를, 또다른 蘇聯선수와 이탈리아가 6백2점으로 공동 3위를 마크했다.

◇첫날전적 ▲여자개인=①폴린·에드워즈(英)606 ②판·애·명(中共)602 ③黃淑珠(한국)600 ▲여자 단체종합=①中共1,798 ②한국1,785 ③蘇聯1,783 ▲남자개인=①알렉산더·가벨코프(蘇)612 ②토미·포이콜라이넨(핀란드)603 ③블라디미르·에세예프(蘇)602 ③지안카를로·페르라리(伊)602 ▲남자 종합전적=①蘇聯1,800 ②핀란드1,779 ③美國1,777

一信女中등 4强에

市長旗 종별排球

◇제2일전적 ▲여고부
부산코(2승) 4—0 외환은행(2패)
경북(2승) 3 (15-10 15-9 15-5) 0 여서고문(2패)
여일상선(1승) 3 (15-7 16-14 15-13) 0 여중고양(1승1패)

21개국參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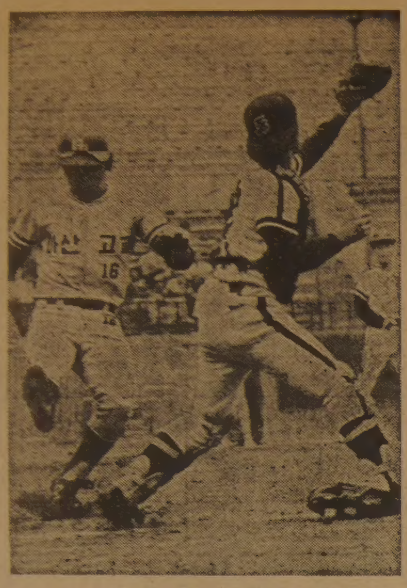
8月 서울J陸上

오는 8월15·16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주니어 오픈육상 경기대회에는 美國·日本等을 비롯 모두21개국이 참가할것으로 밝혀졌다.

馬山高、城南에 콜드게임勝

靑龍旗야구 倂殺노린 악송구편승 7回 8-0

대량·플레이를 노린 城南高투수의 악송구가 엄청난 대량실점의 禍를 불렀다. 비로 하루 쉬고 11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야구대회 이틀째 1회전경기에서 馬山高는 2회말 1死 1·3루에서 城南高투수 金聖秀의 병살을 노린 2루 송구가 빗나가는 결정적인 失策에 편승, 4안타2포볼을 집중시켜 대거 5득점, 승세를 굳혔다.



◇馬山—城南高전. 대량실점을 부른2회말, 城南투수 金聖秀의 2루 악송구로 馬山의 3루주자 金龍植이 첫 득점을 올리고있다.

光州商도 강호仁川제압 5—3

한편 光州商은 仁川高와의 대전서 2회초 張彩根이 仁川선발 金榮鎬을 2점홈런으로 두들기면서 선제리드를잡아 仁川高를 5—3으로 누르고 승리했다.

4회말 4번 林貴善의 2타점 좌중월3루타등 3연속 안타로 3점을 추가, 8—0 7회콜드·게임승을거두었다.

서울예선을 간신히 통과한 城南高는 4회까지 무안타로 눌리다가 5회초2안타 無死1·3루의 좋은기회를 잡았으나 후공으로 득점에 연결치못했다.

◇제2일전적 ▲고등부1회전
성남고 000 000 0 — 0
마산고 050 300 × — 8
〈7회콜드·게임〉
광주상 020 010 110 — 5
인천고 000 000 012 — 3
▲홈런=張彩根(2회초·2점·광주상)
▲중학부1회전
초량중 201 023 — 8
상인천중 000 000 — 0
한밭중 001 000 0 — 1
토성중 310 000 × — 4
〈6회콜드·게임〉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㊾

「은수원사시」開發

53년 가을 서울대농대구내에 정부보조로 세운 연구실(2층은 교미우연)에서부터 세밀된 포플러교잡종 3년생을 처리에 자리를 옮겨 임업시험장육종지장으로 확대개편되면서 활기가 더해갔다. 잡종강세를 얻기위해 1단계로 교잡육종에 주력했다. 교배온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진작에 도입되어 각처에서 성장하고있는 포플러류는 물론 세계각국에 의뢰하여 3백30여종의 포플러 천수와 花粉을 들여다가 교배를 하여 비교시험식재를 했던것이다.

그러나 포플러의 시험식재는 평지에만 가능했는데도 그많은 땅을 살수가 없어 대부분 뜻있는 인사들의 사유지에 심고 실험이 끝나면 나무는 무상으로 地主에게 준다는 조건으로 전국에 확산 식재토록했다.

이같은 실험식재 결과 평지에는 이탈리아계 개량포플러 214호와 467호를 능가하는 품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장려품종으로 지정, 장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탈리아 개량포플러에 관심이 깊은 金태부 元容奭 柳達永 金炳韶 李錫씨 그리고필자등이발기하여한국포플러협회를발족시켰다.

협회는 연구소가 추천한 2종의 포플러를 전국농촌에 보급시키기위해 서울교외 蘭芝島에서 대량으로 양묘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고강습회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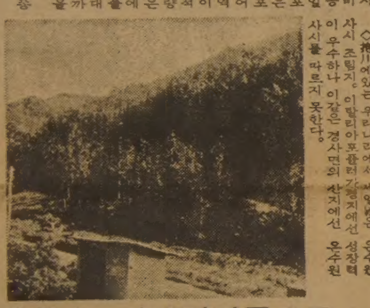
그후 포플러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포플러 적지를골라 대규모의 모범조림을 실시했다. 포플러 보급조림에 있어 한국일보사의 공로는 어디에도비교할수 없을만큼의 공적을 남겼다. 한국일보사가앞장서벌인「포플러 보내기 운동」은 한국을 세계굴지의 포플러 조림국으로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것이다. 이러한 각계의 先覺者적인 조림으로해서 개량포플러의 식재면적은 전국적으로10만정보에 이르렀고이탈리아포플러 본고장의 육종학 대가인 조루다노 박사까지 한국의 식재상황을 보고감탄했다.

이 포플러의 육종에대한 공로로 나는62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 이영예는결코나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연구진모두의 것이고 협회와 한국일보사를 비롯하여 포플러 보급에 힘써온 모든인사들이 고루 나누어 가져야할것이다.

한창 개량포플러를 더해가던 중엔 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의 교배조합도 들어 있었다. 우수한 교배조합을 골라내기 위해 반복교배를 거듭했는데 그중에서도 은백양과 수원사시의 교배조합은 두각을 나타냈고 그우량성이 인정되었다.

64년 대규모 인공교배를 실시하여 산지재를 통해 실험해본 결과 산지에서 이탈리아포플러보다 우수한성장력을 발휘했다. 이탈리아포플러는 수분이 많은 평지에서 뛰어나고 은수원사시(은백양과 수원사시의 교잡종)는 수분이 없어도 토층만 있으면 경사지에서

은백양·수원사시나무 交配에 성공



◇抱川에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넓은 은수원사시 조림지. 이탈리아포플러가 평지에선 성장력이 우수하나 이같은 경사면의 산지에선 은수원사시를 따르지 못한다.

山地선 우수한 成長力…政府장려품으로

라도 성장력이 우수함을확인했다.

그러던 65년 6월10일 권농일에 朴正熙전 대통령이 농진청행사에 참석했다가 오목천리연구소를 들러서 는은수원사시를 만져보며 많이조림토록하라고 격려했다. 그때 나는「산림부」의 독립도 건의했었다.

그로해서 68년부터 이교잡종은 은수원사시라고 명명되어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보급이 시작됐다.

72년 식목일 驪仁에서 열린 행사중 기념사에서 朴전 대통령은 「자원조성을 앞당기기위해 玄信圭박사가만든 은수원사시를 많이심도록 하는것이좋겠다」고 공개권장을했으며 다음해식목일에도,그다음해에도 은수원사시의 대단위조림은 되풀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의 관심에따라 실용가치도 높아졌다. 지금쯤은 심어진 은수원사시가 수억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抱川에있는 慶丘목재소유 산지1백여정보에 심어진 은수원사시는 우리나라 제1의조림지로 樹齡을 이뤄가고있다. 이곳은 뉴질랜드 임업장관등 외국의 인사들이 관찰 시찰하는 모범조림지이기도 하다.

은수원사시는 79년 육림의날부터「현사시」로 개명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있다. 내가 5·16상을 받던날 朴전 대통령은 은수원사시의 이름을 필자의 성을 따서 현사시로 고치도록 산림청에게 지시한데서연유됐다. 그러나는이를 구하며, 개명의보류를요청했었다.

메이저 리그 라이언投手記錄

놀란·라이언

세차장 샤워속으로 던진 불에도 꿈 한방울 묻지않는다는 강속구투수 놀란·라이언(34)이 지난주말 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한꺼번에 두개의 부문 기록을 경신했다.

휴스턴·어스트로스의 右腕 놀란·라이언은 지난주 홈구장에서 벌어진 뉴욕·메츠와의 대전에서 명투수로서는 다소 부끄러운 기록인 메이저·리그사상 최고의 1천7백76포볼을 기록했다.

포볼신기록에대해 라이언은『모든 심판들에 감사한다』라고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는『나같은라이프의투수로서는조금도부끄러울게 없다. 남보다 더 많이 던지니까 기록도 깨지는 당연한 일이란』고말했다.

메이저·리그 경력에서 1천7백75포볼을 남긴페이 비 라이언은 13년째에 1개 더 많은 포볼을 던졌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경기에서 라이언은 그로서는보기드문 좋은 볼·컨트롤로 포볼 2개와 5안타만 허용, 3—0의 완봉승을 올렸다.

라이언은 이날로 46번째 완봉승을 기록했으며 금년시즌 5승3패의 성적을보이고있다. 라이언의 지난 14년간 통산기록은 2백23승 …패, 방어율 3.59였다.

뿐만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이 보유한 한게임 10개이상三振의 최고기록을 1백34게임으로 끌어올렸다. 【外信에서】

前 新民黨舍 서울市 圖書館으로 매입

서울시와 전 新民黨9人청산위원회(위원장 李敏雨전 新民黨총재권한대행)는 최근 麻浦區 桃花洞 전 新民黨당사를 서울시에 넘기기로 잠정합의하고 이번주안에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지하1층 지상5층의 이건물(연건평 9백24평)의 매각대금은 감정원 감정가격인 4억9천만원선이 될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시는 이건물을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할것으로 알려졌다.

永東高 2승 단독先頭

種別핸드볼 男大部선 淸州가 仁川體제압

【光州=韓】제36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2일째경기가 光州실내체육관서 속행, 남고A조의 永東高는 仁川體高를 맞아 일방적인공격을 펼친끝에 31—13으로 낙승, 2승을 기록, 고등부 단독선두에 나섰다.

◇제2일전적
▲남대A조 청주대(1승) 26 (13-10 13-11) 21 인천체대(2패)
▲여일반A조 공사(1무) 19 (7-9 12-10) 19 시청(1승1무)
▲남고A조 영동고(2승) 31 (13-6 18-7) 13 인천체고(1패)
▲남고B조 김제고(1승1패) 16 (9-4 7-10) 14 대구고(1패)
▲여고A조 배제(1승) 21 (11-8 10-5) 13 여정고(2패)
▲여동B조 여물상산(1승) 16 (8-6 8-9) 15 부산여상(2패)

바둑소식

내일名人戰 曺薰鉉대徐奉洙 제2국

曺薰鉉8단과 徐奉洙7단이 겨루는 제12기 名人戰은 13일 제2국을 맞이한다.

제1국에서는 도전자 徐7단이 先勝, 유리한고지를 점령한가운데 이번제2국에서 曺名人이 어떻게 반격할것인가가 최대의 관심거리.

그런데 제2국은 梨花女大앞에서 제과점「호원당」을 경영하는 愛棋家 鄭貴娟씨댁에서 열린다.

障碍者 바둑대회

한국기원은 신체장애자의 해를 기념하는 제1회 전국장애자바둑대회를 오는 7월4일·5일 양일간 한국기원에서 갖는다. 참가자격은 장애자중 대국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대회는 甲조(3급이상) 乙조(4~6급) 丙조(7급이하)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신청마감은 7월3일까지 한국기원 출후부.(778-9819)

石公 朴治文씨우승 實業연맹전 個人戰

지난달31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한국기원배쟁탈 제1회 전국실업연맹전개인전에서우승엔 朴治文씨 (石公)

三國志 156

글·高羽榮 그림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최병걸—난 진정 몰랐었네

●최 헌—가을비 우산속/앵두

●윤시내—열애와 고목의 주인공

●희자매—
아리랑 내님아/실버들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추후 발표

◎주 최 : 한국일보사